

EURASIA CITIZEN DIPLOMATS

Berlin

Istanbul

Almaty

Ulaanbaatar

Beijing

Busan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성과사례집

EURASIA CITIZEN DIPLOMATS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성과사례집



EURASIA CITIZEN DIPLOMATS

CONTENTS

목차

① 인사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06
황석칠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단장	08
전용우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	10

② 사업개요

추진 목적	14
추진 방향	14
외교단 파견 개요	15
연도별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추진 현황	15

③ 주요일정 및 참여자

도시별 일정	18
참가자 명단	20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운영 체계	24
역할 분장	25
세부 역할 분장	25

④ 사업 성과

정량적 성과	28
정성적 성과	28
전년대비 개선사항	28
도시별 활동 성과	29

⑤ 활동 보고

일자별 행사 현황(총 35개)	34
------------------	----

⑥ 단원·참가기관 활동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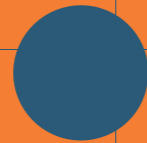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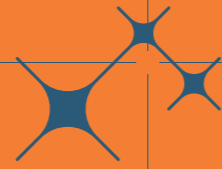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청년 단원	54
글로벌 청년 앰버서더	70
베이징 파견 기업대표단	77
참여 기관	81

⑦ 언론 보도

주요 언론 보도	88
언론보도 현황	94

⑧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글로벌도시재단 현황

설립개요	100
주요사업	100
방송현황	100
주요시설	100
조직	101
2026년도 중점 추진과제	101



1. 인사말

Greeting



B-Road를 향한 ‘One-Team Busan’,
2025년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을 이끌어 주신
항석칠 단장님과 열정적으로 참여한 단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청년들이 주도하는 도시외교의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올해 사업은 단순한 국외 교류 프로그램을 넘어, 도시외교를 통해 경제·산업, 문화, 인재 확충 등 부산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려는 실용적 시도였습니다.

베이징, 울란바토르, 알마티, 이스탄불, 베를린 등 유라시아 5개 도시에서 펼쳐진 활동은 부산이 지향하는 ‘글로벌 허브도시’의 방향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현지 경제인들과 네트워크를 넓히고, 대학과 청년들은 미래형 글로벌 인재 확충과 성장을 도모하였으며,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부산의 개성과 매력을 세계인들에게 알렸습니다.

특히 청년 주도로 학계·산업계·공공기관 등이 함께 협력하며 B-ROAD(함께하는 부산의 길)를 향한 ‘One-Team Busan’으로서 도시의 역량을 결집한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매우 뜻깊은 성과였습니다.

이번 외교단이 펼친 35개 주요 활동과 94개 국내외 기관과의 협업은, 부산이 단순히 교류를 넘어 각국과 상생의 관계망을 이어가는 실질적 공공외교의 장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연속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외교를 지향하며, 글로벌 사회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과 기업,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외교의 흐름 속에서 부산이 세계 도시들과 함께 성장하고, ‘살기 좋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부산의 미래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과 함께한
2025년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성공적인 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황석칠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단장

2025년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단장으로 참여하면서 16일간의 여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긴 여정에 최선을 다해 참여한 모든 분들과 본 행사를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박형준 시장님, 안성민 시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계속된 러-우 전쟁 등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 단원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수행하면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도시외교단은 5개국 5개 도시에서 총 35개의 공식 일정을 수행하며 실질적 교류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지역 기업 8개사가 동행하여 KOTRA 베이징무역관과 연계한 중국 진출 전략 세미나, 16개 기업과의 상담 등을 통해 부산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진 첫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산업·경제·청년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전략 세미나, 기관 간 MOU 체결 등 실용적 도시외교의 기반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울란바토르와 알마티에서는 부산유학 설명회를 개최하여 ‘Study Busan 30K 프로젝트’에 힘을 보탤으며, 1:1 입학상담과 부산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부산 유학생 유치 가능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는 유치원을 방문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친환경 장난감과 도서를 기증하며, 현지 어린이들과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 공동체와 연대하는 활동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부산데이 in 베를린’, ‘부산-알마티 문화교류의 밤’, 무직페스트(Music Fest) 베를린 등 주요 행사에서 2,500명 이상이 참여하며 부산의 문화적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알렸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과 청년예술단의 전통 공연은 각 도시 시민들에게 부산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도시외교 측면에서는 부산-이스탄불 간 첫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도시 현안을 공유하고 신규 협력과제를 발굴했습니다. UN 창설 80주년을 기념한 한국전 참전용사 감사회는 부산의 공공외교 역할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중국·몽골·중앙아시아·유럽 도시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향후 부산의 국제협력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올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기획한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 관계자 뿐만 아니라, 16일간의 긴 여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청년단원들, 지역 기업가, 대학 관계자, 시립무용단, 현지 대사관 영사관, 현지 한인회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이자, 시민 참여형 도시외교 프로그램인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이 부산형 글로벌 거버넌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Greeting

현장에서 만들어진 부산형 도시외교, 함께한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전 용 우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추진한 가장 현장 중심적이고, 참여자 주도적인 국제교류 프로젝트였습니다.

14박 16일 동안 이어진 5개 도시 방문은 경제-산업 협력, 문화 교류, 인재 유치, ESG 자원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도시외교가 관(官)의 영역을 넘어, 시민과 청년이 함께 만드는 부산형 협력 모델임을 확인했습니다.

단원들은 각 도시에서 직접 기업 상담회를 주관하고, 현지 기관·시민과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이끌며 부산의 역동성과 개방성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또한 문화공연, 부산데이 행사, 참전용사 감사회 등 도시외교의 핵심 가치가 담긴 현장마다 참여하여 부산의 따뜻한 시민정신과 문화적 정체성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재단은 올해 사업 간 연계 효과를 강화하여, 방문 도시별 청년 단원들이 리포터가 되어 부산영어방송(BeFM)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고 현지 주요 인사를 인터뷰하는 등 지속 가능한 홍보·교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올해의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숫자로도, 내용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총 103명의 파견단이 35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국내외 94개 기관과의 협력으로 도시외교의 기반을 한층 넓혔습니다. 5개국 5개 도시 약 2,500여명의 현지인들과 소통하고 교류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각계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단원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사례집이 그들의 여정과 성과를 기록하는 동시에, 부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도시외교의 살아있는 교본이 되길 바랍니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앞으로도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시민이 외교의 주체로 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교류의 힘이 부산을 진정한 글로벌 허브도시로 이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여정을 함께하며 안전하게 완수해주신 모든 단원들과 협력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부산의 미래 외교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2. 사업개요

Overview

2

사업개요

추진 목적

자매·우호협력도시(베이징 / 울란바토르 / 알마티 / 이스탄불) 및 도시외교 주요 도시(베를린) 방문과 도시 현안 과제 관련 공공외교 활동 수행

- ✦ (경제/산업) K-뷰티·헬스케어 기업 상담교류회, 미래전략세미나 개최
- ✦ (교육/인재) 부산유학설명회 참여 및 지원, 親부산 글로벌인재 확보
- ✦ (상생발전) 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체결, ESG 자원활동 추진
- ✦ (문화/교류) 부산데이, 문화공연, 한국전참전용사 감사회 개최 등

추진 방향

실용적 도시외교 도시외교의 방식으로 경제/산업, 문화, 인재확충 등 부산시 현안과 연계한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 노력

- ✦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중심 과제 중 국제교류협력 방식이 요구되는 현안 중심 프로그램 구성
- ✦ 참여자 간 One-Team Busan 의식 고양 및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부산형 지식학 시너지 효과 도출

도시 브랜딩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통해 부산과 글로벌 사회와의 유대 강화에 기여

- ✦ 연속성있는 도시외교 활동 및 자매·우호협력도시 간 신뢰기반 파트너십 강화 및 親부산 동반자 도시 확보
- ✦ 인재-산업-문화-관광으로 이어지는 부산의 매력도를 알리고, 청년 등 미래세대가 살기좋은 부산을 강조·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외교단 파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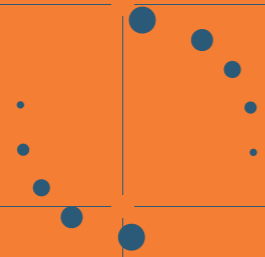
B-ROAD: 함께하는 부산의 길, 글로벌 허브로 드넓히는 지평

기간 2025. 9. 10.(수)~25.(목) [14박 16일]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글로벌도시재단
협력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부산지역 대학교, 주한외국공관, 재외한국공관, 자매·우호협력도시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참가자 지식학 유관기관 및 관계자, 청년, 민간(기업)인 등 103명
내용 주제별 설명회, K-뷰티/헬스케어 등 혁신사업 해외진출 쇼케이스 및 상담회, 문화홍보 및 네트워킹, 정책 세미나 등
파견도시 5개국 5개 도시

유형 (결연일자)	우호협력 (13.8.14.)	우호협력 (16.8.3.)	우호협력 (22.9.14.)	자매 (02.6.4.)	기타
도시명 (국가명)	베이징 (중국)	울란바토르 (몽골)	알마티 (카자흐스탄)	이스탄불 (튀르키예)	베를린 (독일)
기 방문사항	3회(17~19년도)	3회(17, 19, 23년도)	4회(18, 22~24년도)	신규 방문	1회(19년도)

연도별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추진 현황





3.

주요일정 및 참여자

Routes & Participants

도시별 일정



대한민국

부산
9.10.(수)

- 출정식(부산시청)

중국

베이징
9.10.(수) - 9.12.(금)

- KOTRA 베이징무역관 방문
- K-뷰티·헬스케어 한중 기업 상담회 및 교류회
- 재단-베이징시 인민대외 우호협회 협의회 교환
- 글로벌청년멤버서더 임명식
- 현지 혁신기업 방문 및 견학, 문화탐방

몽골

울란바토르
9.13.(토) - 9.15.(월)

- 부산유학설명회 지원, 부산홍보버스 운영
- ESG 자원 활동
- 지역 유치원 대상 ESG 물품(장난감) 기증 및 MOU 체결
- 울란바토르 시청 방문
- 부산도서관 도서기증 및 MOU 체결

카자흐스탄

알마티
9.16.(화)-9.18.(목)

- 부산유학설명회 지원
- 부산-알마티 미래전략 세미나 개최
- 글로벌청년멤버서더 임명식
- 고려인 운영 기업 및 현지 진출 국내기업 방문
- 부산-알마티 문화교류의 밤 개최

튀르키예

이스탄불
9.19.(금)-9.21.(일)

- 이스탄불 시청 방문 및 양측 대표단 미래협력 방안 회의
-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리셉션 및 감사회 개최
- 양 도시 청년 간 교류 및 문화탐방

독일

베를린
9.22.(월)-9.24.(수)

- 부산데이(문화홍보) 개최
- 글로벌청년멤버서더 임명식
- '무직페스트 베를린(부산시향연주)' 참석, 부산홍보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폐막공연 응원 및 관람
-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방문



참가자 명단

부산시의회(1명)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일정
1	황석철	부산시의회 의원	전구간

부산광역시(6명)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일정
1	경윤호	정무특별보좌관	이스탄불
2	홍미선	국제협력과 도시외교정책팀장	이스탄불
3	김보하	국제협력과 영어통역관	이스탄불
4	손평모	국제협력과 국제도시협력 2팀 팀장	전구간
5	서유정	국제협력과 국제도시협력 2팀 주무관	전구간
6	이태욱	정무특별보좌관 비서	이스탄불

부산글로벌도시재단(7명)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일정
1	전용우	대표이사	이스탄불
2	홍경애	글로벌교류본부장	전구간
3	주현후	교류협력팀 팀장	전구간
4	연경심	교류협력팀 부장	전구간
5	장해구	교류협력팀 차장	전구간
6	강창화	교류협력팀 대리	전구간
7	정지원	교류협력팀 대리	베이징-울란바토르-알마티

부산시립무용단(5명)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일정
1	이정윤	부산시립무용단 감독	알마티-이스탄불-베를린
2	박은혜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알마티-이스탄불-베를린
3	안주희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알마티-이스탄불-베를린
4	최윤정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알마티-이스탄불-베를린
5	최의욱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알마티-이스탄불-베를린

베이징 파견 기업대표단(11명)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일정
1	신요한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베이징
2	우슈	더바디성형외과 팀장	베이징
3	웨이웨이홍	서동메티칼 부대표	베이징
4	티엔량	서동메티칼 교육매니저	베이징
5	조익점	스마트빅 총괄이사	베이징
6	이연화	에스와이이노테크 대표	베이징
7	김광희	에스와이이노테크 과장	베이징
8	이래겸	올댓스칼프앤스킨라운지 대표이사	베이징
9	장지원	크레이지엔트 대표이사	베이징
10	이영원	크레이지엔트 사원	베이징
11	박정협	피엠더블유글로벌 대표이사	베이징

청년 단원 (15명)

연번	성명	학교명	일정
1	김명현	동서대학교	베이징-울란바토르-알마티
2	조민형	동서대학교	베이징-울란바토르-알마티
3	최영은	동서대학교	베이징-울란바토르-알마티
4	롱지아엔	동서대학교	베이징-울란바토르-알마티
5	아이사러바 샤이라	부경대학교	베이징-울란바토르-알마티
6	문채원	부경대학교	전구간
7	정유진	부경대학교	전구간
8	엄석린	부산대학교	전구간
9	오예원	부산대학교	전구간
10	유혜원	부산대학교	전구간
11	이선주	부산대학교	전구간
12	이주희	부산대학교	전구간
13	최진수	부산대학교	전구간
14	최종호	신라대학교	전구간
15	홍서영	신라대학교	전구간

부산도서관(2명)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일정
1	이미경	부산도서관 팀장	울란바토르
2	박선희	부산도서관 주무관	울란바토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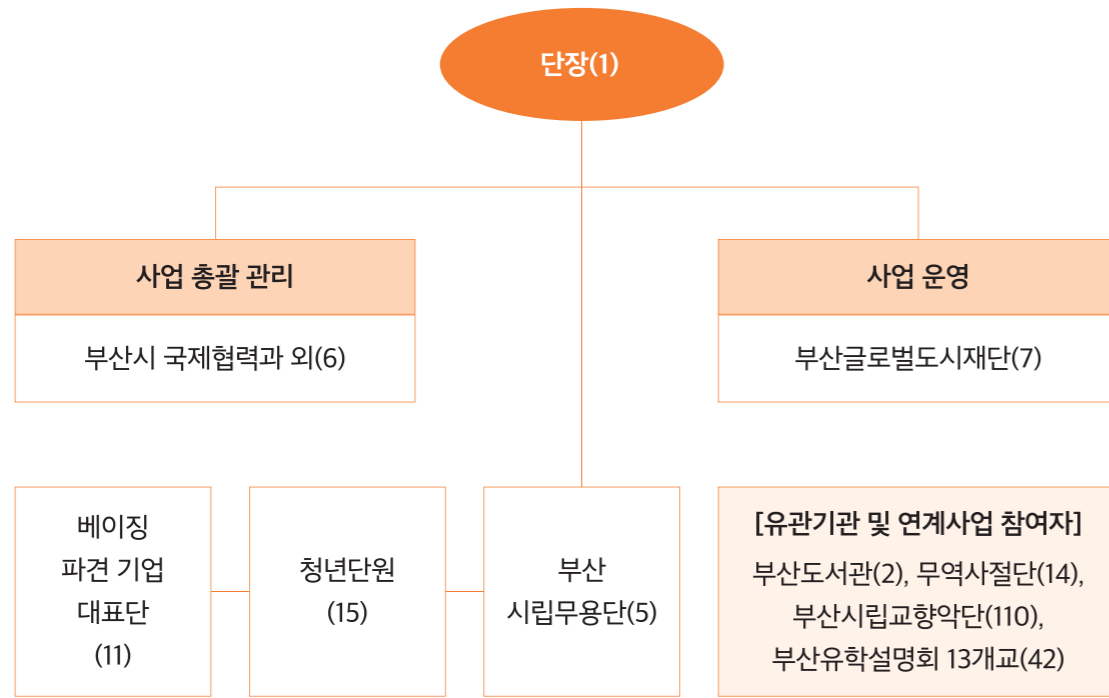
부산유학설명회 참가대학 참가자(42명)

연번	기관/대학명	소속	이름	참여 국가		
				몽골	카자흐스탄	
1	부산광역시	지산학협력과	송정숙 과장박정진 주무관	○	○	
2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세계시민팀	손은선 팀장	○	○	
			오선지 차장	○	○	
		영어방송본부	염시언 대리	○	×	
			지창민 차장	×	○	
3	경성대학교	국제처(국제교류팀)	박지연 처장정세영 담당권성범 담당	○	×	
4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부	김현수 부분부장	○	×	
			김정은 주무관	○	×	
			원희연 주무관	○	×	
			최덕원 부장	×	○	
			문상민 주무관	×	○	
5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제교류본부(유학생지원팀, 한국어교육원)	채영수 팀장권정향 주무관 박현지 주무관	○	○	
6	동서대학교	국제처(국제교류센터)	김애진 부처장한준호 담당	○	×	
7	동아대학교	국제교류과	계민수 담당이림 담당	○	×	
8	동의대학교	국제교류처(국제교류팀)	배금광 처장한다예 담당	○	×	
9	부산대학교	국제처	학생처	이창근 처장	○	×
			이창환 처장	×	○	
			정봉구 실장	○	×	
			조영래 주무관	○	×	
			김은오 주무관	×	○	
10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교류팀	김태진 팀장	○	×	
			이건희 담당	○	×	
			원정원 담당	×	○	
			응웬 잔 떴 담당	×	○	
11	인제대학교	국제교류처	장익준 차장	○	○	
		산학협력단	서정범 담당	○	○	
12	동일과학대학교	국제협력처	김태경 처장김옥명 차장김국용 교수	○	○	
13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국제교육원	윤기정 팀장안은지 담당	○	×	
14	부산보건대학교	국제교류원	정준영 원장	○	○	
15	부산여자대학교	국제교육원	박문규 원장장은영 교수	○	○	

부산경제진흥원 무역사절단(14명)

연번	성명	소속	직위
1	송복철		원장 (단장)
2	김경윤	부산경제진흥원	팀장
3	김지윤		과장
4	박수경	지엠플랜트	부사장
5	오우석		전무
6	최재은	우성밸브	프로
7	이상훈		대표
8	알렉세이 오스트로헨코	동광무역상사	부장
9	손해원	엔글로벌	총괄이사
10	임수영	선월드코리아	대표
11	전시환	아시아교역	대표
12	정성모	이노피아	대표
13	이태훈		대표
14	김혁권	덴큐임플란트	이사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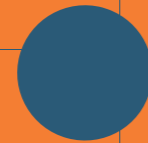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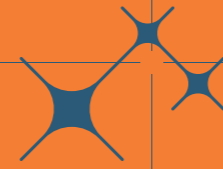


역할 분장

기관명	주요업무
부산시 국제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사업 관리 자매·우호협력도시 관계자 미팅 의제 구성 및 정무특보 의전 홍보 등 언론 보도 관리
부산글로벌도시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사업 운영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기획·실무 관리감독 참가자 관리 지원, 행사 진행, 안전관리 등 홍보 등 언론 보도 관리
베이징 파견 기업 대표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이징 현지 기업과의 교류
청년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외교 활동(부산 홍보, 영상 및 사진 촬영, 문화공연 등)
부산시립무용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별 한국 전통 무용 공연

세부 역할 분장

구분	주요업무	성명
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업무 : 총괄 지휘 및 대표 인사 	황석칠
운영 총괄·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업무 : 운영총괄, 사업 진행 상황 점검 관리 상세업무 : 정무특별보좌관 일정 동행, 고위급 인사 네트워킹 등 	전용우 홍경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업무 : 정무특별보좌관 등 주요 인사 일정 및 의전 관리, 우호협력도시 간 세부 업무 연락 등 상세업무 : 단장 일정 관리 보고, 사업 관리, 정무특별보좌관 행사 통역, 현지 공관 업무 연락 및 관리, 출정식 VIP 관리, 언론보도 등 	홍미선 김보하 손평모 서유정
청년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업무 : 전 일정 세부 진행 및 상황 관리, 운영 등 상세업무 : ① 계획수립 및 단위별 행사 추진, 보도자료, 예산 집행 등 ② 전 단위 행사 추진 - 출정식 및 구간별 행사 추진, 대원 관리 및 안전 관리 등 - 인솔 및 안전관리, 공용물품 관리, 예산 운영 및 집행 등 ③ 인원관리 : 인원수 상시 점검, 비상 연락체계 유지 - 승하차 및 좌석 안내, 인원수 체크, 숙박시설 체크인/아웃 확인, 교통편 및 생활편의 수시 확인, 식사 시간 안내, 인솔 및 체크 ④ 이동(버스, 항공), 개인 외출 자제, 안전 등 ⑤ 활동관리 : 팀별 진행 사항 점검 및 체크 - 포럼 및 활동 발표, 영상 촬영 전반 등 	주현후 연경심 장해구 강창화 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주도 부산 홍보 부스 운영 및 국가 간 청년 문화 교류 활동 진행 국제 교류 프로그램 및 문화 공연 기획·운영 청년 자원활동 (취약지역 유치원 환경 정비, ESG 물품 기증 등) 전 일정 영상촬영, 편집 및 영상 제작, 인터뷰 문화공연(베이징, 올란바토르, 이스탄불, 베를린) 	이선주, 최종호 외 13명



4. 사업 성과

Results

정량적 성과

총 파견 인원 103명, 35개 행사·활동 기획 및 실행(유관기관 연계 추진행사 포함 시 213명 참여)

계	시의회 (단장)	부산시	부산 글로벌 도시 재단	부산 시립 무용단	베이징 기업 대표단 (8개 업체)	청년 단원 (4개대학)	부산 도서관	부산유학설명회 참가대학 관계자 (총 13개 대학)	부산 경제 진흥원 무역 사절단	부산 시립 교향악단
213	1	6	7	5	11	15	2	42	14	110

국내외 총 94개 협력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외교단 프로그램 성료

※ 현지 프로그램 참여 및 방문 기관(94개소)

부산(35)	베이징(32)	울란바토르(9)	알마티(12)	이스탄불(4)	베를린(2)
· 부산시의회 · 부산문화회관 · 부산경제진흥원 · 부산테크노파크 · KOTRA부산지원본부 · 부산지역 8개 기업 · 부산지역대학(경성, 부경, 해양, 동서, 동아, 동의, 부산, 외대, 신라, 인제, 동의과학, 부산과학, 부산보건, 부산여대) · 무역사절단 8개 기업	· KOTRA중국지역본부 · 베이징시인민대외우호협회 · 베이징공상연연합회 · 샤오미그룹 · 시원그룹 · AI로봇 전시장 · 중국 베이징 지역 26개 기업	· 울란바토르시 · 성진헤르한구 · 부산도서관 · 나차그도르지 시립 공공도서관 · 주몽골대한민국 대사관 · 월드비전몽골지부 · 유치원 3개소 (#215, #341, #26)	· 알마티시 · 시의회 · 주알마티총영사관 · 알마티 한국교육원 지부 · BNK 알마티법인 · KOTRA 알마티 무역관 · 에코비스 · 신라인그룹 · 카스피안그룹 · 바야사엔터테인먼트 · 고려인뿌리교육센터 · 고려극장	· 이스탄불 시 · 주이스탄불총영사관 · 참전용사 시르케지 지부 · 한국전참전용사 기념사업회	· 주독일한국대사관 · 주독일한국문화원

정성적 성과

경제/산업, 문화, ESG 공헌, 도시 간 협력 기반 강화

- 단원 및 현지 참가자들의 능동적 참여 확대 : 홍보부스 운영, ESG자원활동, 문화공연, 세미나 발제 등
- 체감형 성과 확보 : 재단 최초 비즈니스 기업 상담회 개최를 통한 실질적 경제 성과 창출, 업무 협약 체결,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 교류 세미나 개최 등
- 재단 내 사업간 연계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 방문 도시별 부산영어방송 콘텐츠 제작 및 홍보 활동 전개 (5개 도시별 청년 단원들의 현지 소식 리포팅 및 주요 인사 인터뷰 진행)

전년대비 개선사항

- 외교단 파견도시 증가(24년 : 3개국 4개도시 → 25년 : 5개국 5개도시)
- B-ROAD라는 공통 주제를 토대로 개별 도시 특성을 고려한 핵심 주제 사업추진
- 능동적 참가자 모집을 위해 일부 구간 선택적 참여 가능 및 청년 참가자 대학 자체 선발로 전환
- 부산-유라시아 경제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 강화
 - 부산지역 16개 기업 25명 관계자 참여, 베이징·알마티 현지 기업 연계 상담회 추진 및 비즈니스 협력 지원

도시별 활동 성과

① 부산(25.9.10.) 유라시아도시외교단 출정식(부산시청)



- 60여명의 외교단 참가자 및 주요 인사 참여에 따른 국내외 협업 기반 조성
 - * 주요 인사: 중국, 카자흐스탄, 몽골 외교 인사, 부산시 행정부시장, 부산시의회위원장, 전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장 등
- 외교단 주요 참여구성원 간 네트워킹 및 사전 협조 분위기 형성
- 참여 청년단원의 문화공연, 프로그램 구성 취지 소개 등 내실 있는 출정식 운영

② 베이징(25.9.10.-12.) 재단 최초 비즈니스 기업 상담회 및 교류회 개최, 기관 업무 협약 체결



- 베이징시 및 상공계 협업 기반 K-뷰티/헬스케어 기업 상담회 및 교류회 기획 및 개최
- 부산지역 8개 기업-중국/베이징 소재 26개 기업 참가
- 총 상담 48건, 상담액 규모 약 330만달러(한화 약 45.8억원 상당)
- 경제적 실효성-체감 가능한 교류협력 성과 제고를 위한 기관 간 업무 협약 체결
 - : 재단-베이징시인민대외우호협회 업무 협약 체결(25.9.11.)
- 親부산 차세대 인재 확보 및 지역 청년 간 교류를 위한 글로벌청년멤버서더 5명 임명

③ 울란바토르(25.9.13.-15.) 양 도시간 현안 과제 중심의 체감형 정책 교류, ESG 자원활동 진행



- ✦ 부산유학설명회(25.9.13./13개 대학, 400여명 방문) 개최 지원, 부산홍보부스 운영
- ✦ 울란바토르시, 성긴헤르한구 대상 도시 현안과제(교육환경개선) 논의, 양 도시 간 우호협력도시체결 10주년 기념사업 논의
- ✦ 도서기증 MOU 체결(재단-나차그도르지 울란바토르 시립공공도서관-부산도서관)
- ✦ 유치원 3개소(9월 신규개소 장애·비장애 아동 국립유치원 등) 대상 ESG 자원활동 : ESG 장난감, 벽면꾸미기/식목활동, 놀이프로그램 진행(현지 교육수요 기반)

④ 알마티(25.9.16.-18.) 경제-문화를 통섭하는 세미나, 문화교류 행사 개최, 청년 인재 육성 지원



- ✦ 부산유학설명회(25.9.16. 8개 대학, 1,000여명 방문) 개최 지원, 부산홍보부스 운영
- ✦ 부산-알마티 미래전략세미나 개최(70여명 참여), 양 도시 정재계 인사 간 네트워킹
- ✦ 부산시립무용단-외교단 청년단원 주축의 고려인 대상 문화교류 행사(180여명 참여)
- ✦ 현지 진출 기업 및 현지 기업 탐방을 통해 청년 해외 진출 멘토링 전개
- ✦ 알마티 한국교육원과 협력한 글로벌청년멤버서더 5명 임명

⑤ 이스탄불(25.9.19.-21.) 외교단 최초 이스탄불 방문, 정책가-청년교류 추진, 한국전참전용사감사회 개최



- ✦ 외교단 최초 이스탄불 방문에 따른 양 도시 간 고위 정책가 양자회의 진행
- ✦ 도시 간 지속가능한 우호증진을 위한 양 도시 청년 간 문화 교류 활동 전개 * 현지청년 26명 참여, 체류 기간(3일) 중 청년 간 교류 위한 프로그램 운영
- ✦ UN창설 80주년 기념,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연대성과 책무성에 입각한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감사회' 개최, 감사패 전달 및 문화공연 시연 등
- ✦ 이스탄불 시, 현지 주요부처, 주이스탄불총영사관 간 적극 협조에 따른 문화교류 진행

⑥ 베를린(25.9.22.-24.) 부산데이 in 베를린 개최, 세계적 명성의 무직페스트 베를린(부산시향 연주) 참가



- ✦ 부산데이 in 베를린 성료(250여명 관람객)
- ✦ 청년단원 주도의 부산홍보, 양 도시 청년 간 K-Pop 댄스 합동 공연 등 교류 활동
- ✦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부산의 문화관광 영상 및 관련 자료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
- ✦ 무직페스트 베를린(부산시향 연주) 단체 관람
- ✦ 주독일대사관, 주독일한국문화원과의 협업을 통한 베를린 구간 활동 진행

5.
활동 보고

Records

일자별 행사 현황(총 35개)

날짜	도시명	No	행사명
9.10.(수)		1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
		2	KOTRA 베이징 무역관 방문
9.11.(목)	베이징	3	K-뷰티·헬스케어&관광 부산-베이징 기업 상담회
		4	K-뷰티·헬스케어&관광 부산-베이징 기업 교류회
		5	부산-베이징 공동 주최 네트워크 만찬
		6	재단-베이징시인민대외우호협회 협의회 교환
		7	글로벌청년엠버서더 임명식 in 베이징
9.12.(금)		8	스터디&필드워크(자금성)
		9	스터디&필드워크(휴머노이드 AI 전시장)
9.13.(토)		10	부산유학설명회 in 울란바토르
9.14.(일)	울란바토르	11	215번 유치원 활동
		12	341번 유치원 활동
9.15.(월)	울란바토르	13	성진헤르한구-재단-월드비전몽골 MOU 체결
		14	26번 유치원 활동
		15	울란바토르 시청 방문
		16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9.16.(화)	알마티	17	부산유학설명회 in 알마티
		18	부산-알마티 미래전략 세미나 개최
		19	부산-알마티 미래전략 네트워킹 오찬
9.17.(수)	알마티	20	글로벌청년엠버서더 임명식 in 알마티
		21	스터디&필드워크(에코비스)
		22	스터디&필드워크(신라인그룹)
9.18.(목)	알마티	23	스터디&필드워크(침블락)
		24	부산-알마티 문화교류의 밤
9.19.(금)	이stanbul	25	부산-이stanbul 도시 간 양자회의
		26	스터디&필드워크(IMM Water Sports Center)
9.20.(토)	이stanbul	27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리셉션
		28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감사회
9.21.(일)		29	이stanbul 시청 주관 청년 문화교류 활동
9.22.(월)	베를린	30	부산 홍보부스 운영
		31	부산데이 in 베를린 문화 공연
		32	글로벌청년엠버서더 임명식 in 베를린
9.23.(화)	베를린	33	대사관 접견 및 대사관 견학 프로그램 참여
		34	스터디&필드워크(포츠담 상수시 궁전)
		35	베를린 무직페스트 폐막공연(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 참석 및 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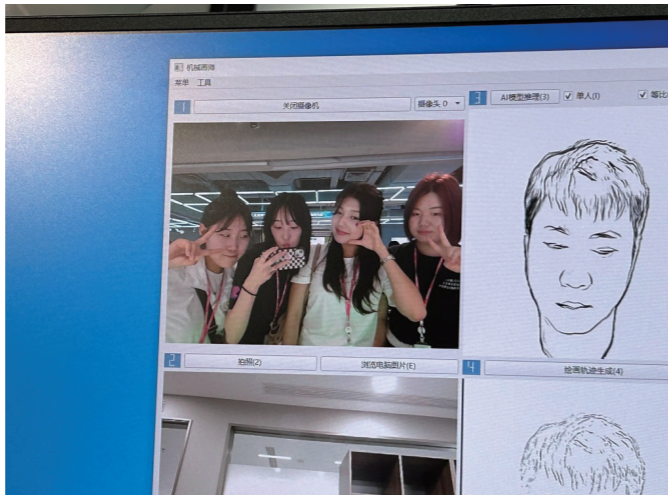


①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 / ② KOTRA 베이징 무역관 방문



③~④ K-뷰티·헬스케어 부산-베이징 기업 상담회·교류회 / ⑤ 부산-베이징 공동 주최 네트워크 만찬 / ⑥ 재단-베이징시인민대외우호협회 협의회 교환 / ⑦ 글로벌청년멤버서더 임명식 in 베이징





5일차

9. 14.(일) - 울란바토르

㉠ 215번 유치원 활동 / ㉡ 341번 유치원 활동



6일차

9. 15.(월) - 울란바토르

㉢ 성긴헤르한구-재단-월드비전몽골 MOU 체결 / ㉣ 26번 유치원 활동 / ㉤ 울란바토르 시청 방문 / ㉥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㉞ 부산유학설명회 in 알마티 개최 지원



㉟~㊱ 부산-알마티 미래전략 세미나 개최 및 네트워킹 오찬 /
 ㊲ 글로벌청년멤버서더 임명식 in 알마티 / ㊳~㊴ 스터디&필드워크(에코비스, 신라인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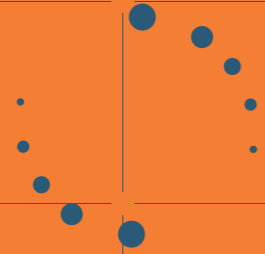
㉔ 부산 홍보부스 운영 / ㉕ 부산데이 in 베를린 / ㉖ 글로벌청년앰버서더 임명식 in 베를린



㉗ 대사관 접견 및 대사관 견학 프로그램 참여 / ㉘ 스터디&필드워크(포츠담 궁전) / ㉙ 베를린 무직페스트 폐막공연 참석 및 응원, 일정 종료 및 이동(베를린→도하 경유→부산)







6.

단원·참가기관
활동 후기

Review

1.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청년 단원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청년 단원

기획·홍보팀 동서대학교 롱지아엔 학생

Q1.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으로서 참여하며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몽골에서 열린 한국 유학 박람회였습니다. 평소 몽골에 대해 잘 몰랐는데, 그곳에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고,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몽골 하면 양젖이 유명하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다양한 양젖 제품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Q2. 프로그램 기획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활동의 목표 대상과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 박람회의 설문 퀴즈 게임은 업계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활동이 있다는 것을 몰라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Q3. 나에게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사업은 어떤 의미로 남았나요?

이번 활동은 제 시야를 넓혀주고 세계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었습니다. 평소 잘 갈 기회가 없는 나라들을 많이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이 아니었다면 저는 몽골과 카자흐스탄에 가보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처음 갔을 때, 그곳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청년 단원

기획·홍보팀 동서대학교 김명현 학생

Q1.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으로서 참여하며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저는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으로 활동하며 모든 순간이 뜻깊었지만, 특히 활동을 준비하며 팀원들과 함께 기획안을 구상하던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현지 상황을 고려하며 “어떻게 하면 부산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특히 몽골은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기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진정한 웃음과 행복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서 실현될 때 느꼈던 보람과 성취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Q2. 프로그램 기획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상대방의 문화와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부산을 홍보하는 활동이 아니라, 현지 사람들과 진심으로 교류하며 서로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획하려고 노력했습니다.

Q3. 나에게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사업은 어떤 의미로 남았나요?

저에게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사업은 단순한 해외 교류활동이 아니라, 함께 성장한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현지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문화를 교류하며, ‘도시외교’란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활동을 준비하며 팀원들과 협력하고 각국의 다양한 관점 속에서 문화를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 팀워크의 가치와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미소와 따뜻한 반응을 보며, 작은 행동 하나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이로써 진심이 전해질 때 교류의 의미가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 이 경험은 제게 ‘교류의 의미’와 ‘소통의 힘’을 몸소 체득하게 한 소중한 경험이 되었으며, 앞으로 관광과 MICE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세계와 소통하는 관점과 태도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활동은 제게 단순한 봉사나 파견이 아닌, 사람과 도시, 그리고 문화를 잇는 진정한 외교의 시작점으로 남았습니다.



기획·홍보팀 동서대학교 최영은 학생

Q1.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으로서 참여하며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으로서 활동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부산의 여러 대학교에서 모인 학생들과 빠르게 친해지고, 베이징, 올란바토르, 알마티 현지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느꼈던 경험입니다.

특히, 처음 만난 동료들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을 함께하며 팀워크를 다질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더불어, 방문했던 각 도시에서 현지 학생 및 직원분들과 직접 소통하며 문화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교류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던 것이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Q2. 프로그램 기획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부스를 '참여형'으로 기획하여,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가 즐겁게 활동에 동참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모두가 기억에 남을 만한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Q3. 나에게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사업은 어떤 의미로 남았나요?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사업은 제 인생에서 소중하게 기억될 보물 같은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고, 다양한 곳을 방문하여 폭넓은 문화와 사람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을 만큼,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과 성장의 기회를 안겨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획·홍보팀 부경대학교 정유진 학생

Q1.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으로서 참여하며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튀르키예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분들을 직접 만나 보았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들께 감사패와 기념주화를 전달하며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모습이 뿌듯하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세대를 넘어 이어진 진심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날의 교류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역사와 사람을 잇는 진정한 외교의 현장이었습니다. 참전용사분들의 눈빛 속에서 평화의 가치와 외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도시외교가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닌 '마음을 잇는 일'임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Q2. 프로그램 기획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각 도시의 문화적 특성과 대상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현지 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K-뷰티 수출박람회를 통해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했고, 올란바토르에서는 유치원 아동들과 함께 벽 꾸미기와 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따뜻한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알마티와 튀르키예에서는 사전 기획된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과 팀워크에 집중하였으며, 베를린에서는 오미자주와 매실주를 낱알콜 형태로 만들어 현지인과 함께 즐기는 한국식 환영문화를 선보였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의 상황과 참여자의 성격을 고려한 세밀한 준비야말로 진정한 '도시 간 상호이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3. 나에게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사업은 어떤 의미로 남았나요?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세계 "도시와 사람이 만나 서로를 이해한 여정"이었습니다. 국제통상학을 전공하며 배운 '국가 간 협력'의 의미를, 이번 활동을 통해 '사람 간 교류'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개국을 돌며 다양한 문화권의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에서 언어를 넘어선 공감과 협력의 힘을 체감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협상력과 현장 대응력을 기를 수 있었고, 부산을 대표한다는 자부심 속에서 진정한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국제협력과 외교분야에서 나아갈 저의 방향을 굳히게 해준 값진 계기였습니다.

기획·홍보팀 부산대학교 이선주 학생

Q1.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으로서 참여하며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이스탄불에서 현지 대학생들과의 문화 교류가 기억에 남습니다. 탁심 광장 인근을 걸어다니며 계속 대화를 나눴는데, 혼자 왔더라면 몰랐을 현지 맛집이나 지식을 얻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한 여자 친구는 저녁에 직접 제가 묵는 호텔로 와서 택시 타고 술 한잔 사주고 다시 호텔로 데려다줬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짧은 시간에 이정도 유대감이 생긴 것에 lingua franca로서의 영어, 언어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청년 외교의 중요성을 느꼈고, 그 주역으로서 저도 앞으로 힘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이스탄불의 모습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시민이란 그저 다른 점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확장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2. 프로그램 기획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타겟 오디언스에 맞는 부산시 홍보 전략을 떠올리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유학 박람회에서는 한국 대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올 예정이니 학생증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결과 행사 시작 1시간 만에 200개 넘는 수량이 나왔습니다. 베를린 행사 때는 쿨 하우스를 사전 조사했을 당시 방문자 연령대가 낮지 않았으며, 문화적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임을 알고 한국 다과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부스를 운영하는데 있어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주요 안내원으로 배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Q3. 나에게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사업은 어떤 의미로 남았나요?

베를린에서는 분단의 상처를 극복하고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난 도시의 모습을 통해 '기억 문화'를 배웠습니다.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국제학부로서 궁금했던 질문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청년들도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죄책감/책임감을 가졌는지, 통일 후 경제적, 이념적 문제 차이가 컸을 텐데 미래에 한국이 통일된다면 독일이 사 용했던 돌파구를 적용할 수 있을지, 실무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께 질문할 수 있어 국제 사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4학년 졸업 전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취업 준비생으로서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의 존재를 알게 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도시 외교는 협약서나 회의가 아니라,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경험은 공공외교 리더로서의 시야를 넓히고, 도시 간 관계를 이끌어가는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획·홍보팀 신라대학교 홍서영 학생

Q1.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으로서 참여하며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베를린에서 부산 홍보부스를 운영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생각보다 작은 건물이라 '과연 이곳에서 홍보와 교류회를 잘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책상을 배치하고 홍보 굿즈로 부스를 꾸미다 보니 점점 보람도 느껴지고 재미도 생겼다. 특히 제로슈거 사탕을 파도 모양으로 배치해 부산의 바다를 연상시키도록 한 내 아이디어가 무척 뿌듯했고, 그날 내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스를 운영하는 동안 정말 많은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방문해 주었고, 정신없을 만큼 바쁘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오간 짧지만 다정한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Q2. 프로그램 기획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바로 '아이디어'였다.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아닌 '도시 부산'을 홍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산만이 가진 특색과 도시 이미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몽골 어린이집에서 벽화를 꾸밀 때도 부산의 바다, 광안대교, 그리고 부산의 마스코트 부기를 넣어 조화롭게 표현했다.

또한 행사장에서 물품을 디스플레이할 때도 단순히 일렬로 놓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배치할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처음에는 어떻게 디피해야 할지도 잘 몰라 서툴렀지만, 여러 나라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점점 감을 익히게 되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떠올랐다. 그 덕분에 부스를 더 아름답고 완성도 있게 꾸밀 수 있었다.

Q3. 나에게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사업은 어떤 의미로 남았나요?

정말 잊지 못할 만큼 귀중한 경험이었고, 내 가치관까지 변화시켜 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평소 몽골이나 터키에 가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도시외교단으로 참여하며 예상치 못한 소중한 경험들을 얻을 수 있었다. 사실 이 활동이 내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나중에 해외 간호사를 준비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야가 넓어졌다. 낯선 타지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2주 동안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는 것은 처음엔 두려웠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재미있었고, 그만큼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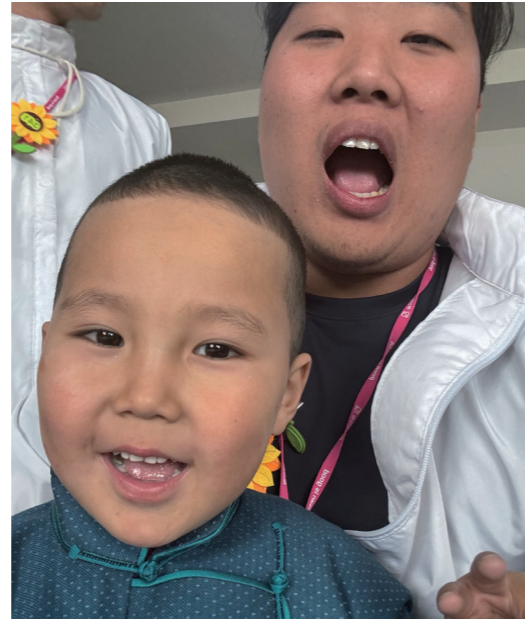


기획·홍보팀 신라대학교 최종호 학생

Q1.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으로서 참여하며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정말 많은 순간이 기억에 남지만 이스탄불에서 6.25. 참전용사분들께 감사패를 전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거 같습니다. 행사 며칠 전부터 건강 때문에 참여를 못하신분도 생기고 가장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감사패를 전해드리는데 성공해서 눈물을 조금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울란바토르에서 아름다웠던 아이들을 마주했을 때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활기에 기운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저희가 준비한 놀이를 너무 잘 즐겨줘서 가슴이 따뜻한 기억이 있습니다.



Q2. 프로그램 기획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먼저 그들이 무엇을 원할까를 다같이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 최대한 그 타겟을 잡아서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변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해외로 가는만큼 정말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대안을 A부터 Z까지 많은 부분을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저희의 시간투자였던거 같습니다. 최대한 팀원들도 더 많은 회의를 하고자 했었고 카톡으로도 많은 대화를 나누며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도 중요한거 같습니다.

Q3. 나에게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사업은 어떤 의미로 남았나요?

당연히 시야도 넓히고 좋은 경험도 많은 의미로 남았지만 저를 더 알아갔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며 알바도 해야하고 과제, 공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저를 계속 잃어가던 상황에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을 경험하니 다시 내가 무엇을 좋아했고 무엇을 잘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느낄 수 없던 감정들까지 느꼈습니다. 이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단원들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번 기회로 다시 용기를 얻어 더 높은곳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이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팀 동서대학교 조민형 학생

Q1.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으로서 참여하며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몽골 유치원 방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만약 여행으로 갔다면 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놀이도하고 장난감도 주고 하는 등 가장 뿌듯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저희를 위해 공연도 준비하고 하는 등 가장 그 나라의 문화를 잘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Q2. 영상 촬영 및 편집을 하며 주안점을 둔 부분이 무엇인가요?

청년단원들의 모습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풍경이나 화면구성의 미장센보다는 단원들이 유라시아를 방문하며 남겼던 발자국을 담고 싶었습니다. 또한 편집에서도 청년단원들이 진행했던 많은 모습을 간결하게 담으며 이후 유라시아에 참여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저희 영상을 보고 2025년도 유라시아에는 이런 일을 했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Q3. 나에게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사업은 어떤 의미로 남았나요?

25년도 중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단원으로써 3개국을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였고,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명의 멋진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쉽게도 아시아구간까지만 참가하였지만 이후 다음에도 이런 활동이 있으면 그때 전구간 참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게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참여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당연히 참여하라고 말할 정도로 이번 활동이 좋았습니다.



영상팀 부경대학교 문채원 학생



Q1.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으로서 참여하며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외교 활동에 대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울란바토르 시청에 방문하여 부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어린이 유치원 급식 운영에 대해 협력과 교류를 요청하시던 부분이었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아닌 도시와 도시가 협력하는 부분들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국가의 측면에서 다루기에는 세부적이고 작은 부분들은 도시외교에서 협력할 수 있겠구나를 부시장님과의 중요한 자리에서 청년단원들인 저희도 함께 참여해서 볼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크게 배울 수 있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스탄불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분들을 만나 감사패를 전달해드렸던 경험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운영을 옆에서

보조하며 외교적인 행사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많이 배웠습니다.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눈빛을 마주했던 그 순간, '외교'라는 것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걸 깊이 느꼈습니다.

Q2. 영상 촬영 및 편집을 하며 주안점을 둔 부분이 무엇인가요?

영상 편집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단순히 활동 장면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청년단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영상을 참고했을 때, 배경 설명이나 자막 없이 활동 장면만 이어붙인 구성이라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가진 자리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단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활동에 참여할 청년단원 지원자나 부산 시민분들 등이 단원들의 열정과 주도적인 활동 모습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편집하는 것이 목표였기에, 영상 전체의 톤은 너무 무겁지 않게, 브이로그 형식의 자연스럽게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각 장면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도록 편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영상은 '행사의 기록'이 아닌, '청년 외교단의 이야기'로 보이길 바란다는 목표로 완성했습니다.

Q3. 나에게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사업은 어떤 의미로 남았나요?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저에게 대학생들 중 가장 많이 기억에 남을, 하길 잘했다 1등 활동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2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5개국의 나라를 돌아다니며, 쉽게 잘 못 가볼 도시부터, 여행으로는 절대 못할 공식적인 행사 운영까지. 옆에서 행사를 보조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활동 이후 저에게 남은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시야가 넓어졌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문화가 다른 여러 도시들을 직접 가 보고, 현지 분들과 소통 해보고, 무엇보다 공식적인 행사를 운영하시는 담당자 분들을 보면서 국제적인 시야가 넓어지고 취업과 진로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팀 부경대학교 아이사러바 샤이라 학생



Q1.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으로서 참여하며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제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순간은 알마티의 '신라인(Shin-Line)' 공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이 견학을 통해 대규모 기업의 실제 생산 인프라와 현대적인 운영 방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설명을 들으며 지역 산업 구조에 대해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활동 중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들과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들과 대화는 저의 시야를 넓히고 국제적·지역적 발전에 대한 인식을 더욱 깊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경험이 모여 프로그램 전반이 저에게 매우 큰 의미로 남았고, 국제 협력과 도시외교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2. 영상 촬영 및 편집을 하며 주안점을 둔 부분이 무엇인가요?

영상 촬영과 편집을 진행하면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우리 단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따뜻하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단순한 정보 전달용 영상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진짜 표정과 감정, 그리고 활동의 실제 흐름을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스러운 순간들을 중심으로 장면을 구성하고, 내용의 연결성과 영상의 흐름을 고려하여 편집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덕분에 프로그램의 역동성과 진정성이 잘 드러난 영상이 완성되었고, 시청자가 활동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Q3. 나에게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사업은 어떤 의미로 남았나요?

저에게 이번 프로그램은 국제적 시각을 넓히고, 다양한 문화권과의 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경험이었습니다. 도시외교의 역할과 지역 간 협력의 필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문화 교류가 사회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과의 만남, 기관 방문, 공동 활동들은 제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을 더 명확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 개인적·학문적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국제 협력 분야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준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공연팀 부산대학교 엄석린 학생



Q1.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으로서 참여하며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으로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공연을 마친 직후, 여러 국가의 엠버서더 친구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이었습니다. 중국·몽골·카자흐스탄·튀르키예·독일 등 다양한 문화권의 엠버서더들이 한국 무용 공연을 진심으로 즐겨주고, 작품에 대한 질문과 응원을 건네주셨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무대 위에서 느꼈던 긴장감과 성취감에 더해, 공연이 하나의 '문화 외교'가 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함께 간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팀원분들과의 시간입니다. 준비 과정부터 이동, 공연, 행사 참여까지 계속 함께 움직이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웃었던 소소한 순간들이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팀원들과의 호흡 덕분에 더 당당하게 무대에 설 수 있었고, 그 과정 자체가 값진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활동의 의미를 더 깊게 느끼게 해준 가장 특별한 순간들이었습니다.

Q2. 해외 공연을 준비하며 가졌던 마음가짐은 어땠나요?

해외 공연을 준비하면서 한국무용만이 가진 정서와 아름다움을 제대로 전달하자는 마음가짐이 가장 컸습니다. 낮은 무대에서 한국적인 미와 에너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동작 하나·호흡 하나에도 더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버꾸 공연은 한국 전통의 리듬감과 장단의 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관객들이 처음 봐도 한국적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표정·호흡·군무의 합을 더 세밀하게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한국(부산)을 대표해 무대에서는 만큼, 개인뿐 아니라 팀 전체의 조화와 책임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유라시아 해외 공연은 "우리 춤을 진심으로 전하고 오자"는 마음으로 임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Q3. 나에게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사업은 어떤 의미로 남았나요?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사업은 저에게 무대 밖까지 확장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한국무용을 전공하며 주로 무대에서 표현하는 일에 집중해 왔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공연이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국가와 문화를 잇는 하나의 외교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여러 나라의 엠버서더들을 만나 문화적 시각을 공유하고, 우리 춤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반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하고 있는 이 춤이 누군가에게는 한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첫 장면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또 함께한 유라시아 팀원들과의 시간은 팀워크·배려·협력의 가치를 다시 느끼게 해주었고, 예술가로서뿐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순한 해외 파견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정체성과 시야를 넓혀준 '확장'의 경험으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공연팀 부산대학교 오예원 학생

Q1.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으로서 참여하며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청년 단원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공연을 했던 때였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해외에서 공연을 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더욱 뜻깊었고, 제 전공인 한국무용을 통해 다섯 개국 무대에 오르며 한국의 전통무용을 알릴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뿌듯했습니다.

해외공연이다 보니 각 나라의 무대 환경이 모두 달라, 어떤 곳에서는 무대가 좁아 당일에 인원을 줄이거나 구성을 급하게 수정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수들 속에서도 각 나라의 언어로 인사말이나 호응을 유도하는 멘트를 공연 중간에 넣어보는 시도를 하며 관객과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전통무용을 직접 보고 느끼며, 한국에서의 공연과는 다른 문화적 교류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Q2. 해외 공연을 준비하며 가졌던 마음가짐은 어땠나요?

해외 공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그저 춤만 열심히 추자"라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외 공연장에 가보니, 자연스럽게 그 나라 관객들이 어떤 부분에서 즐거워할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반응을 이끌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할수록 저희 스스로도 무대를 점점 더 즐기게 되었고, 덕분에 예상보다 힘들지 않게 해외기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객들과 모든 단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무대를 즐겼던 것이 이 경험을 더욱 특별하고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Q3. 나에게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사업은 어떤 의미로 남았나요?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사업은 저에게 예술로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게 해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해외에서 한국무용을 선보이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각 나라의 관객들과 직접 호흡하며 문화가 언어를 넘어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무대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수정하며 공연을 완성해가는 과정은 협력과 유연함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공연을 할수록 저희 스스로 무대를 즐기게 되었고, 그 에너지가 관객들에게 전달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무용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업은 저에게 단순한 해외 경험이 아니라, 예술을 통한 외교와 교류의 가치를 직접 체감한 성장의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공연팀 부산대학교 유혜원 학생

Q1.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으로서 참여하며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알마티의 고려극장에서 공연할 수 있었던 경험은 지금도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전해지는 관객들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박수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예술을 몸으로 표현하며, 문화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힘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약 여섯~일곱 차례의 공연을 진행하면서, 매번 무대의 크기나 환경이 달라 우리가 준비해 간 작품을 그대로 선보이기 어려운 상황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팀원들과 함께 현장에 맞게 동선을 조정하고 안무를 새롭게 구성하며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같은 작품이라도 무대마다 다른 색깔로 표현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새로운 경험이 되었고, 현장 감각과 적응력의 중요성을 몸소 배우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Q2. 해외 공연을 준비하며 가졌던 마음가짐은 어땠나요?

해외 공연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한국무용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다른 나라에 온전히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한국무용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낯선 나라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직접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뜻깊고 값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연을 잘 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정서와 우리 춤의 감성을 관객들에게 진심으로 느껴지게 하고 싶다는 책임감도 함께 안고 준비했습니다. 또한 해외 무대에서 한국무용을 출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큰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 기대와 설렘만큼 더 완성도 높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 연습 과정에서도 마음을 다해 임했습니다. 단원들과의 호흡 역시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팀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맞춰 나가고자 했습니다. 이 공연이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한국문화를 세계와 나누는 소중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게 준비했습니다.

Q3. 나에게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사업은 어떤 의미로 남았나요?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사업은 제게 '예술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접 확인한 특별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한국무용을 전공하며 늘 마음속으로만 간직했던 꿈을 실제로 해외 무대에서 실현해 보았고, 우리 춤이 언어와 문화를 넘어 외국 관객들과도 진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공연팀 부산대학교 이주희 학생

Q1.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으로서 참여하며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매 순간이 기억에 남지만 그래도 처음 떠나는 날 시청에서 했던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공연을 할 무대도 없었고 대기 공간도 마땅치 않았으며 짐도 많아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러한 불편한 감정이 들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그 후에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으로 참여하며 행복했던 감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첫 날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Q2. 해외 공연을 준비하며 가졌던 마음가짐은 어땠나요?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뜻깊은 활동인만큼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또한 한국무용 외에 추는 K-POP은 단 한번도 배워보지 않았고, 즐겨 보지도 않아서 저에게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Q3. 나에게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사업은 어떤 의미로 남았나요?

졸업을 앞둔 4학년에 이러한 기회가 찾아온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행복한 추억입니다.

솔직히 국제적인 교류나 외교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 아는것이 없었기에 이런 활동이 있는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계기로 무용을 하면서도 해외에서 춤을 출 수 있으며, 한국과 부산을 알릴 수 있는 의미있는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내가 정말 무대에 오르고 관객을 즐겁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춤을 사랑한다는것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활동이었던것 같습니다.



공연팀 부산대학교 최진수 학생

Q1.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으로서 참여하며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공연을 하던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데, 그중에서도 알마티 고려극장에서 고려인분들과 함께 '아리랑'을 제창하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무대 위에서 하나의 노래로 마음이 이어지는 그 순간, 국적과 세대를 넘어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스탄불에서는 한국전 참전용사분들께 한국 춤을 선보일 수 있어 무용수로서 큰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고, 베를린에서는 한국무용은 아니지만 현지 학생들과 함께 K-POP 무대를 함께하며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16일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국적과 전공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Q2. 해외 공연을 준비하며 가졌던 마음가짐은 어땠나요?

한국의 정서를 담은 한국 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였기에 같이 공연을 올리는 무용수들과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전통 악기(버꾸)와 한국 춤이 그들에게 낯설 수 있지만 '신명'이라는 정서를 함께 공유하고 싶었고 춤이라는 언어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준비하였습니다.

Q3. 나에게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사업은 어떤 의미로 남았나요?

먼저 소중한 인연들과 뜻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저에게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타국에서 공연을 하는 것 자체가 귀중한 경험인데 무려 5개국에서 공연을 올릴 수 있어 행복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는 젊은 예술가로서 한국무용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EURASIA
CITIZEN
DIPLOMATICS

2. 글로벌 청년 앰버서더

글로벌 청년 앰버서더

Global Youth Ambassador 2025 from Germany Thanh-Mai Julia Le

Being part of the *2025 Eurasia Citizen Diplomats Program* has been one of the most meaningful experiences of my academic and personal journey this year. As a *Global Youth Ambassador* representing Germany, I had the privilege to take part in several core activities, including the Appointment Ceremony, co-MCing at the *Busan Day in Berlin* event and co-MCing at the *Closing Ceremony 2025 Eurasia Citizen Diplomats and Global Youth Ambassadors*. Each of these moments taught me something new about diplomacy, collaboration, and especially the power of cultural exchange.



As a *Transnational European and East Asian Culture and History* student at the Bonn University in Germany and the Korea University in South Korea, the program also connected deeply with my academic background. My studies focus on cross-cultural relations and transnational dynamics between Europe and East Asia, and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 allowed me to apply this knowledge in practice. It was inspiring to see how academic ideas, such a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transnational cooperation, come to life in real events and diplomatic interactions.

The *Busan Day in Berlin* was particularly special because it brought Korean culture into the heart of my home country. Seeing local German participants interact with Busan's rich heritage, from performances to community activities, reminded me how cultural exchange can build bridges even between people who meet for the first time. It was also impressive to see important guests, including the Korean Ambassador to Germany, attend the event, which showed its significance. After completing the entire program and learning about the citizens of Busan, I realized how well the *Busan Day in Berlin* captured Busan's spirit of openness and hospitality. Even though it was my first time meeting everyone, I was warmly welcomed by the Eurasia Citizen Diplomats, Global Youth Ambassadors and the organizers.

Co-MCing with Seonju, a Eurasia Citizen Diplomat, throughout the program was another highlight for me. Working together allowed me to grow both as a communicator and as a team player. We talked a lot during the breaks in between and I got to learn about her, her perspective and her journey as a Eurasia Citizen Diplomat. I am glad that we not only connected through our role as co-MCs but also became friends. Coordinating the flow of events, keeping the audience engaged and bridging linguistic and cultural gaps in real time gave me valuable hands-on experience in public communication. I am grateful for the trust the *Busan Global City Foundation* placed in us and for the supportive environment that made the experience enjoyable and rewarding.

The Appointment Ceremony was especially memorable. After the Appointment Ceremony at the *Busan Day in Berlin*, I talked with the other German Youth Ambassadors about how meaningful the event is and how important our role as Global Youth Ambassadors truly is for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This made us even more motivated when we later traveled to Busan to fulfill our role. I felt truly honored, thankful and proud to be appointed as one of five German Global Youth Ambassadors, especially because it was carried out by such important figures and representatives. Additionally standing alongside passionate Youth Ambassadors and Eurasia Citizen Diplomats showed me how important youth participation is in shaping future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eremony was not only symbolic, but also a reminder of the responsibility we carry to foster mutual understanding across borders.

Additionally, I also received a lot of encouragement from people outside the program. Friends, family, fellow students from Germany and even my professors from my Korean university expressed how meaningful the program is and how proud they were to see me represent Germany as a Global Youth Ambassador. Their feedback reinforced my belief in the value and impact of this program.

Overall, the *Eurasia Citizen Diplomats Program* strengthened my belief in the impact of grassroots diplomacy. This experience encouraged me to continue acting as a connector between cultures and to use my experiences in Korea and Europe to promote dialogue, understanding and collaboration. I am deeply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and for your team's hard work and support. I look forward to seeing the future initiatives and the growing network of Eurasia Citizen Diplomats.

2025 유라시아 시민외교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올해 제 학업과 개인적인 여정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독일 글로벌 청년 앰버서더로 활동하며 위촉식, 베를린 부산데이 행사 공동 MC,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및 글로벌 청년 앰버서더 폐막식 공동 MC 등 여러 핵심 행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외교와 협업, 그리고 특히 문화교류의 힘에 대해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독일 본 대학교(Bonn University)와 한국 고려대학교에서 '초국가적 유럽-동아시아 문화와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이번 프로그램은 제 학문적 배경과도 깊이 연결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제 전공은 유럽과 동아시아 간의 문화적 관계와 초국가적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이론들이 실제 행사와 외교적 교류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베를린 부산데이는 제게 더욱 특별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제 고국인 독일의 중심에서 소개하는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공연부터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까지, 현장을 찾은 독일 참가자들이 부산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직접 경험하는 모습은 문화교류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도 자연스럽게 다리를 놓는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주독한국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며 행사 자체의 의미와 중요성이 한층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부산 시민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뒤 돌아보니, 베를린 부산데이는 부산이 가진 개방성과 현대의 정신을 정말 잘 담아낸 행사였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글로벌 청년 앰버서더,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따뜻하게 환영받았다는 점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프로그램 전반에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선주와 함께 공동 MC를 맡았던 경험 또한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로 협력하며 행사 흐름을 조율하고, 관객을 참여시키며, 언어와 문화를 잇는 역할을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과정은 저에게 실질적인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길러주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나눴던 대화 덕분에 선주의 개인적인 여정과 관점을 들을 수 있었고, 단순한 공동 진행자를 넘어 친구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소중했습니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에서 저에게 맡겨준 신뢰와 따뜻한 지원 덕분에 모든 순간이 즐겁고 보람찼습니다.

위촉식 또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를린 부산데이에서 위촉식을 마친 뒤, 다른 독일 청년앰버서더들과 함께 그 의미와 우리의 역할이 국제 관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누며 더 큰 동기부여를 얻었습니다. 이후 부산으로 이동해 우리의 역할을 수행할 때 더욱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인사들의 주제로 다섯 명의 독일 대표 글로벌 청년앰버서더 중 한 명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영광이자 감동이었습니다. 동시에 열정적인 청년 앰버서더들과 유라시아 도시 외교단과 함께 서 있으니, 미래 국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청년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위촉식은 단순한 상장을 넘어 국경을 넘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외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 독일의 동료 학생들, 그리고 한국 대학의 교수님들까지 이 프로그램의 의미를 강조하며 독일 대표로 활동하는 저를 자랑스러워해 주었습니다. 이런 지원은 제가 이번 프로그램이 지닌 가치와 영향력을 더욱 확신하게끔 해주었습니다. 이번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프로그램은 풀뿌리 외교(grassroots diplomacy)의 영향력에 대한 제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지속하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화와 이해, 협력을 촉진하는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재단의 노력과 지원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네트워크가 더욱 확장되고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Global Youth Ambassador 2025 from China Liu Xuan



Since coming back to Beijing, I have returned to my normal life and still be busy with the curriculum, presentation, internship and tutoring. Retrospecting the days in Busan, it was like a relaxing trip, leaving the unforgettable memories for me.

When they asked about the impressions of Busan, every time I recommended them to visit this beautiful city and said Busan was an excellent city for living and enjoying our lives. Personally, Busan is a special city for me not only because it was the first city I visited in the Republic of Korea, but the people (especially the staff in Busan Global City Foundation), the great scenery and the lifestyle here all gave me the deep impressions.

In September, we have met the Korean team, and attended the opening ceremony together. On that night, we were honored to be appointed as the global youth ambassadors and were invited to attend the 2025 Eurasia Citizen Diplomats Program. This appointment gave us the chance to have more communications with youths from different countries, which enriched our experience as well as stretching our mind. What's more, the performances were impressive as well. Students from both China and Korea gave us the excellent shows. From these shows, I would like to express the importance of cultural exchanges. From my perspective, exchanges between government, enterprises and individuals (especially youths) are significantly meaningful, because we live in the same community---the earth. We live and breathe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Communication,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are significantly important in such a world with rapid development. China and Korea are countries in Asia, and we are not only geographically close, but also have the commonalities in traditions and customs for the reason of cultural exchanges. This type of program is vital because we know more about each other!

Last but not least, sincerely hope our friendship will last forever! And looking forward to see you again in the future to have more deep exchanges.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 커리큘럼, 발표, 인턴십, 튜터링 등으로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보낸 시간을 되돌아보면, 마치 편안한 여행 같았고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겨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산에 대한 인상을 물어볼 때마다, 저는 이 아름다운 도시를 꼭 방문해보라고 추천했고, 부산은 삶을 누리기도, 살기도 훌륭한 도시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산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방문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직원들을 비롯한 따뜻한 사람들, 멋진 풍경, 그리고 이곳의 생활방식이 모두 깊은 인상을 남겼기에 제게 더 특별한 도시입니다.

9월에는 한국 팀을 만나 함께 개막식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글로벌 청년 앰버서더로 임명되는 영광을 얻었고,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프로그램에 초청받았습니다. 이 임명은 다양한 국가의 청년들과 더 많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우리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날의 공연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학생들이 훌륭한 무대를 선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공연을 통해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 생각에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특히 청년) 간의 교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같은 지구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며,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숨 쉬고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이 세계에서 소통, 협력, 그리고 공동의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중국과 한국은 아시아의 이웃 국가일 뿐 아니라, 오랜 문화적 교류로 인해 전통과 풍습에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우정이 앞으로도 오래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깊이 있는 교류를 위해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Global Youth Ambassador 2025 from Türkiye Elif Rabia Gülseren



I'm writing this quick briefing to you as my testimony of our wonderful time together.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memories and laughter. Our first day together consisted of brief introductions between the youth and we got to sit down and really get to know each other! There was a bit of cultural shock revolving around stray animals and how many stray cats there are all around. We got to discuss foods, restaurants, pets, music and even movies. It was a pleasant experience for all of us as we got to discover how despite being located so far away, the youths of Istanbul and Busan had so many interests in common. I remember there being a lot of laughter and gasps of pleasant surprise that day. Both me and my friend from the event still use the presents you've given us, we hang our Busan seagull keychains on our bags proudly. I also actively use the pen in classes and reminisce? About the friendships we've made. On our second day we picked up chatting from where we left off and the Busan youth was kind enough to teach us some Korean phrases! There was a lot of teaching from both sides as we also taught them some Turkish phrases. Since both languages are etymologically similar to each other these quick lessons were quite efficient! I still remember some of the words to this day, thanks to your help. We got to take pictures together and also got to experience Korea's deep rooted culture ourselves thanks to the incredible dance performances. I remember being so amazed at both the clothing and the motions. We were truly lucky to get to witness such authentic performances, it was a huge pleasure. Last but not least, on our third day we all met up and got to see some sights! Getting to see Yerebatan Sarnacı together was wonderful. We chatted about the sights and what's next for our friends in Busan. We also went sightseeing in the Fatih Mosque and had sweet moments instructing our friends on headscarves. I absolutely adore the group photos we took that day! In addition we got to eat together afterwards and our friends got to try kumpir. The tables were filled with chatter. I look back on those days fondly and hope they had as much fun as we did! I still follow most of the Busan youth on social media to this day and we occasionally interact! I would say the visit was a total success as we got to make some lifelong connections. We as the Turkish youth are thankful for your visit and hope to meet you again someday.

3. 베이징 파견 기업대표단

베이징 파견 기업대표단

주식회사 크레이지엔트 대표 장지원

지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베이징 기업단으로 참가하며 짧지만 밀도 높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부산을 출발해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부터 일정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기업인으로서뿐 아니라 도시 간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첫날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진행된 중국 시장 동향 및 진출 전략 브리핑은 가장 인상 깊은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 현지 시장의 변동성, 온라인 플랫폼 소비 패턴, 중국 내 K-뷰티·헬스케어 카테고리의 성장 방향을 생생하게 들 수 있었고, 이는 우리 SCHÖN:U 브랜드의 향후 해외 진출 전략을 재점검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 진행된 K-뷰티·헬스케어 한중 기업 상담회는 매우 실질적인 성과를 남겼습니다.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중국 바이어들의 제품 선호도, 현지 인증 및 유통 구조, 가격 정책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친환경·내추럴 콘셉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강하다는 점을 체감했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 브랜드의 해외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공식 일정 외에도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베이징 기업인연합회와의 만찬을 통해 중국 기업의 조직문화와 현지 경영자들의 시장 인식을 들 수 있었고, 이러한 만남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기회'가 아니라, 서로의 도시가 가진 잠재력과 산업 생태계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연결 지점이었습니다.

셋째 날의 자금성 방문과 로봇·혁신기술 전시관 탐방은 단순한 관광 프로그램을 넘어, 중국이 가진 거대한 역사 기반과 첨단 기술 산업의 속도감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로봇 산업 전시관에서는 현지의 기술 적용 속도와 소비자 시장 반응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 앞으로 제품 제조·디자인·마케팅 전반에서 혁신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 안에서 만난 사람과 기업, 그리고 현장에서 느낀 시장의 온도는 앞으로 저희 크레이지엔트의 글로벌 확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부산 기업들이 해외 도시와 더욱 긴밀히 교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프로그램의 글로벌 청년 앰버서더로 임명된 것은 저의 개인적·전문적 여정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제 고향인 알마티에서 시작되어 활기찬 해안 도시 부산에서 그 결실을 맺으며 계속된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은 9월 17일 알마티 라향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미래전략 세미나를 통해 시작되었고, 그 순간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대표단을 맞이한 것은 저에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개회식은 진지하면서도 영감을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안드레이 신 선생님과 송복철 부산경제진흥원장님의 말씀은 우리의 임무가 지닌 중요성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저는 특히 1세션에서 도스칼리예프 선생님께서 알라타우 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배우고, Baysa Entertainment와 Shinline의 리더들과 함께 창의경제에 대해 논의한 시간이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를 통해 양 지역 간의 실질적 경제 협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2세션에서는 고려극장의 전 로디온 선생님이 “문화는 모든 외교의 기반”임을 다시 일깨워주었습니다.

행사의 정점이었던 글로벌 청년 앰버서더 임명식은 저에게 매우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멘토들 앞에서 이 직함을 받은 것은 유라시아 네트워크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동기를 주었습니다.

알마티에서의 임명식을 마친 뒤, 프로그램은 부산으로 이어졌고, 이 경험은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여정이 특별했던 이유는 바로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중국, 독일, 튀르키예에서 온 대표단과 함께 이동하며, 우리는 작은 규모의 글로벌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부산을 함께 탐방하며, 우리는 단순한 참가자에서 하나의 가족처럼 가까운 공동체로 변화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서로의 다양한 배경을 이야기하며, 혹은 부산의 도시 인프라에 감탄하며 문화적 장벽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독일과 튀르키예의 이야기를 한국과 중국의 시각과 비교해보고, 미래를 향한 공통된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프로그램은 저에게 하나의 글로벌 가족을 선물했습니다. 알마티에서의 전략적 논의부터 부산에서 유라시아 각국 친구들과 함께한 공동의 경험까지, 저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의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자 하는 열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배움과 교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현사회적협동조합 금정구지역자활센터

2025년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일원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이번 일정은 금정구지역자활센터가 지역을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해외 교류가 아니라, 저희 센터가 가진 사회적경제 역량과 지역자활의 경험을 세계 도시와 나누며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베이징에서 확인한 뷰티·의료·라이프스타일 산업의 발전은 앞으로 금정구지역자활센터가 지역과 국제무대 모두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민 일자리와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하게 해주었습니다. 현지 뷰티케어 기업 및 의료기관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취약계층 돌봄·의료동행·건강관리 등 저희가 추진하는 다양한 자활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향후 기술·서비스 교류까지 논의할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더욱 확신하게 된 것은, 도시 간 협력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경과 문화가 다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돌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대한 고민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정책과 시스템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저희 센터가 가진 강점과 잠재력 또한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만난 여러 기관들은 저희 센터의 사회서비스 경험 특히 의료·돌봄·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국제 공동프로젝트로 확장해보자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금정구가 대한민국의 한 지역을 넘어 세계 도시와 연결되는 사회혁신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더 넓은 세계 속에서, 그리고 세계가 금정구를 통해 새로운 사회혁신 모델을 발견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도시외교단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정구지역자활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을 넘어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에스아이이노테크

이번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기업상담회와 교류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중국 시장의 분위기와 현지 관계자들의 관심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희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 더욱 분명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1:1 상담에서는 바이어들의 니즈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바이어도 있어, 향후 업무 협약을 통해 중국 수출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교류회에서도 다양한 업종의 분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험은 저희 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런 교류의 기회가 계속되어 부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바디성형외과의원



이번 베이징 출장은 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함께한 첫 출장이었습니다.

더바디성형외과의원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여 긴장도 있었지만, 행사 내내 주현후 팀장님과 장해구 차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큰 존중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좋은 바이어분들을 만나 미팅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획이 준비되어 있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물론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바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향후 비즈니스로 확장될 가능성 자체가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참가하신 여러 기업 대표님들 역시 너무 좋은 분들이었고, 귀국 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정구지역자활센터와의 미팅을 통해 서로 협력하기로 한 것도 큰 성과였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든 순간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이런 규모의 행사를 준비·운영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완벽하게 이끌어 주신 주현후 팀장님과 장해구 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출장에도 꼭 다시 함께하고 싶습니다.

4. 참여 기관

참여 기관

부산도서관 박선희, 이미경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방문 여정기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 울란바토르 방문은 부산도서관과 울란바토르도서관 간 교류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책을 통한 문화 외교의 의미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일정에서 울란바토르 유치원 두 곳(215, 341 유치원)에 유아도서를 기증하고 몽골 전통 환영인사와 공연을 관람하며, 나무를 심고 유치원 벽면을 꾸미는 활동을 함께하면서 아이들과 직접 교감했던 순간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배우는 341 유치원에서는 교육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실감했습니다.

울란바토르 부시장 및 주몽골대사와의 접견을 통해 몽골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울란바토르 공공도서관과 국립도서관을 방문하였을 때 역사와 전통을 지키며 시민 독서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기록을 존중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산도서관과 울란바토르도서관 간의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은 양 지역 도서관 간 우호관계 증진과 상호 이해 촉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도서 기증과 협약은 향후 교류협력사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며, 한국문학과 유아도서가 몽골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몽골 방문으로 책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문화 외교의 중요한 수단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도서 기증과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몽골 간의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 및 대학생 참여자들과 함께한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추억을 인생 여정의 한페이지로 기억하겠습니다.





베이징시인민대외우호협회 왕위 北京市人民对外友好协会党组书记 王禹

이번 중 한 미용건강산업 기업 교류회는 선선한 초가을 풍경 속에서 베이징과 부산이 다시 한 번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베이징시는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구축을 목표로 의약·건강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미용·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두 도시의 산업적 강점을 연결하기 위해 본 교류회가 마련되었고, 양 도시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30여 개의 중·한 기업이 참여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시장 개척과 브랜드 협력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건의 초기 협력 의향이 도출되며 양 도시 기업 간 협력 잠재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베이징시인민대외우호협회는 2012년 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인연을 맺은 이후 지속적인 민간외교 활동을 통해 시민 간 신뢰 증진과 도시 간 실질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양 기관이 2025-2027년 우호교류 활동 양해각서를 새롭게 체결하며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번 일련의 활동은 단순한 교류 행사를 넘어, 양 도시 시민 간 우정의 증진과 산업 자원의 효과적 연계를 동시에 실현한 소중한 결과입니다. 베이징시인민대외우호협회는 앞으로도 민간외교의 통로로서 역할을 다하며 중 한 기업의 협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교류회의 모든 참여자와 협력 기관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베이징과 부산이 함께 더욱 넓은 협력의 미래를 열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本次中韩美容健康产业企业交流会在金风送爽的初秋顺利举行，为北京与釜山再次确认合作潜力提供了重要契机。当前，北京正以建设国际科技创新中心为目标，积极推动医药健康产业的高质量发展；釜山则作为韩国医疗、美容与健康产业的重要枢纽，近年来持续展现出强劲的发展动力。为了更好地发挥两市产业优势、深化务实合作，本次交流会得到了两地企业和机构的广泛参与，并取得了丰硕成果。

活动期间，三十余家中韩企业开展“一对一”精准洽谈，围绕市场拓展、品牌协作等议题进行了深入交流，形成了多项初步合作意向，充分体现了两市企业在美容健康领域的巨大合作空间。

北京市人民对外友好协会自2012年与釜山全球城市财团建立联系以来，通过持续的民间交流不断增进两市市民间的相互理解与信任，并推动两市友好合作关系不断深化。在本次活动中，双方正式签署了《2025—2027年度友好交流活动备忘录》，进一步明确了未来合作方向。



此次系列活动不仅是两地民间友谊的真实写照，更促进了产业资源的高效对接，展现了中韩两国人民民心相通、互利共赢的美好愿景。北京市人民对外友好协会将继续发挥首都民间外交的重要桥梁作用，持续推动中韩企业合作迈向更高水平。

衷心感谢所有参与和支持本次交流会的嘉宾与机构，也期待北京与釜山未来携手开创更加广阔的合作前景。



주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



2025년 부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카자흐스탄 알마티 방문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양 도시간 협력관계에 있어 대단히 의미있었다고 기록될 것입니다.

부산시와 알마티시간 관계는 2022년 5월에 주부산카자흐스탄 총영사관이 개설되고, 같은해 9월에는 부산시와 알마티시가 우호협력도시 협약이 체결된 이후로 양 도시간 교류 관계가 지속되어 왔는데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 올해 특별한 전기를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5년 8월에는 부산시의회와 알마티시의회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양 도시의 우호 협력 관계는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교육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이뤄지고 한층 더 공고해졌고, 9월에는 부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이 알마티를 방문하여 미래 경제협력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한국의 전통무용을 선보여 이곳 알마티를 비롯한 카자흐스탄에 도시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됩니다.

우선, 미디어분야 파트너십, 스마트팜 그리고 K-culture와 결합된 농식품분야, 창의성에 기반을 둔 AI산업 분야에서 양 도시간 협력방안에 대한 전략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가 미래를 준비하며 보다 성숙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됩니다.

아울러 뜻깊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알마티 고려극장에서 한국 전통무용을 선보였는데 참석한 우리 고려인 동포들에게도 가슴깊은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특히 고려극장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가 배가 되었는데 고려극장은 한글문화권에서 창립된 최초의 극장이고 1932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창립된 이후, 크즐오르다, 알마티로 이전하며 우리 동포 강제이주의 여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는 역사적인 자산이며, 2016년 국립 아카데미 극장으로 승격되는 등 현재도 그 예술적 명성을 유지하고 있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홍범도장군과 같은 독립운동가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있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한-카 청년세대들과 공연을 함께하게 되어 남다른 감동을 가져다주었다고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알마티시와 부산시간 교류관계가 더욱 진작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알마티총영사관은 가교역할을 다할 것이며 미래를 이끌어갈 한국과 카자흐스탄 청년세대들간에도 활발한 교류가 지속되도록 부산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활발한 활동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온;아티스트(on;Artist GmbH & Co. KG) 대표 최정원

2025년 유라시아 도시 외교단 베를린 부산데이' 행사를 마치고

저는 이번 '2025년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베를린 부산데이' 행사를 베를린 현지에서 대행한 법인 온;아티스트(on;Artist GmbH & Co. KG) 대표 최정원입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초 추진되면서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담당자분들의 전문적이고 프로페셔널한 대응, 그리고 신속하고 구체적인 협업 덕분에, 현지 섭외와 실행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전문적인 사전 준비의 완벽성

또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사전 답사 일정에서, 방문해 주신 답사팀은 저희가 제안드린 공연장들을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살펴보고, 동선과 공간 활용을 여러 차례 점검하셨습니다. 또한 공연까지 직접 관람하시며 현장의 분위기와 관객 반응을 체험한 덕분에, 본 행사 당일에는 모든 절차가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현지 관심과 성과

이번 부산데이는 홍보 초기부터 현지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근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홍보를 시작한 지 단 3일 만에 600명 이상의 참가 신청이 몰렸고, 안전 문제로 부득이하게 홍보를 조기 중단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홍보 중단 이후에도 이메일, SMS, 지인 추천 등을 통해 참여 의사를 계속 밝혀올 만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여정의 피로를 잊게 한 협력

공연 당일, 튀르키예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행사를 준비하고 개최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사전 답사에서 이미 동선을 세밀히 점검하셨고 행사 직전까지 저희와 긴밀히 소통해 주신 덕분에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도시외교단 단장으로 함께하신 황석칠 시의원님, 부산광역시 손평모 팀장님,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의 홍경애 본부장님, 주현후 팀장님, 연경심 부장님 외 모든 참가자분들이 긴 여정의 마지막 도시이자 행사였기에 심신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분위기를 시종일관 편안하고 즐겁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모두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고, 현지 진행을 맡은 저희는 이러한 배려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릴 따름이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성과는 독일에서 '부산(Busan)'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한국 방문 시 꼭 가봐야 할, 가보고 싶은 도시'로 부상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행사에 참가했던 저희 지인 중 한 분은 내년도 한국 여행을 계획하며 서울과 부산 외 다른 도시까지 추천해 달라고 문의할 정도로 이제 부산은 당연히 한국에서 방문해야 하는 호기심과 매력이 넘치는 도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현지 방문객들에게 부산의 친절함, 젊고 밝은 에너지, 그리고 부산만의 독특한 먹거리와 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며 성공적인 마무리를 이끌었습니다.



감사의 메시지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지향했던 핵심 목적, 즉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에 참여한 부산 학생들과 현지 학생들이 현장에서 교류하고 협업하며 부산의 볼거리, 먹거리, 문화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선보이고자 했던 목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번 부산데이를 도운 현지 학생들과 댄스팀 팀원들이 행사가 끝난 후에도 별도로 감사 메일과 SNS 연락을 보내올 만큼 모두에게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저희 온;아티스트 팀 또한 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시간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과정 속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부산글로벌 도시재단의 빠른 판단, 유연한 조율, 그리고 무엇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있었기에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행사를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Vielen Dank für die Chnace den Busan Day bei Ihnen zu arbeiten. Sollten sie nochmal eine Aushilfe suchen, melden Sie sich gerne.

"저에게 이렇게 좋은 부산데이 행사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하고 싶습니다" Josefine Hoppe

vielen Dank für die Möglichkeit, dass ich ein Teil dieses tollen Events sein durfte. Es hat sehr Spaß gemacht und war richtig schön!

"이 멋진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재미있고 좋았어요!" Jette Jonient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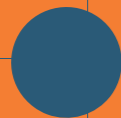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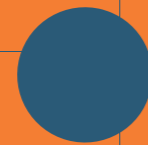
Ich bedanke mich nochmals vielmals, dass ich bei der Veranstaltung mithelfen durfte und wünsche Ihnen ein schönes Wochenende.

"이렇게 좋은 행사에 도움을 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Denise Kreienbring

Es hat mich sehr gefreut, bei einer so interessanten und originellen Veranstaltung aushelfen zu dürfen. Vielen Dank!

"이렇게 흥미롭고 독창적인 행사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isa Triebel

그 외의 많은 방문객들이나 친구들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의 감사 메일을 받았습니다.



7.

언론보도

Media coverage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2025. 09. 14.)

부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자매·우호 도시 협력 강화

연합뉴스 오수희 기자(2025. 09. 10.)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 [부산시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와 부산 글로벌도시재단은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이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여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시외교단은 시민과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시민참여형 도시 외교 사업'이다.

올해는 자매·우호 협력 도시 4곳과 주요 교류 거점 도시 1곳 등 5곳에서 35개 행사를 열어 도시·분야별로 부산 브랜드 홍보와 도시 간 교류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도시외교단은 베이징, 울란바토르, 알마티, 이스탄불, 베를린 등 5개 도시에서 지역기업·인재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인재 유치, 지속적인 도시 외교활동을 통한 부산의 동반자 도시 확보 등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부산·베이징 기업상담회와 교류회를 열어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는 부산 유학설명회와 유치원 환경개선을 통해 교육·환경 분야 협력의 폭을 넓힌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는 부산·알마티 미래 전략 세미나와 부산·알마티 문화교류의 밤 행사를 연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는 유엔 창설 80주년 기념 한국전 참전용사 감사회를 열어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공유하고 형제 국가와 우정을 다진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부산의 역사와 문화, 도시브랜드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이 지난 11일 K-뷰티·헬스케어 기업교류회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 뷰티·헬스케어 8개 기업 구성 대표단
베이징서 중국 진출 활성화 경제교류 진행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중국 베이징에서 뷰티·헬스케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경제 교류 행사를 열었다.

시는 재단과 함께 지난 10~11일(현지 시각) 베이징에서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첫 방문 일정으로 부산 기업대표단의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알렸다.

이번 기업대표단은 뷰티·헬스케어 분야 8개 기업으로 짜였다. 기업대표단은 지난 10일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을 방문해 중국 시장 진출 전략과 무역보험 활용 방안, 상표등록 절차 등 실무 정보를 공유받았다. 이어 11일에는 베이징 그랜드메트로파크 호텔에서 'K-뷰티·헬스케어 기업 상담회'를 열어 16개 중국 기업과 총 48건, 330만 달러(약 45억8000만원) 규모 상담을 진행했다. 이는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활동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진 첫 사례다.

같은 날 저녁에는 'K-뷰티·헬스케어 기업 교류회'가 열려 부산과 베이징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이 자리에서 재단은 베이징시 인민대외우호협회와 민간교류 지속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전통 악기 공연과 한국무용 공연 등 문화 교류도 함께 진행됐다. 또 베이징 청년 5명이 '부산-베이징 청년 글로벌 대사로 위촉돼 향후 청년 교류에 나서게 된다.'

12일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전시장을 찾아 중국 로봇산업 현황을 둘러보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베이징 방문은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이 우호 교류를 넘어 경제 교류로 확장된 첫 사례"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규모를 키워 베이징이 경제 분야에서도 함께 걷는 동행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또 "경제 교류로 여정을 시작한 만큼 다음 방문 도시인 울란바토르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어가겠다"고 힘썼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osh9981@yna.co.kr

부산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울란바토르로서 교육분야 교류

연합뉴스 오수희 기자(2025. 09. 17.)



부산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울란바토르로서 교육분야 교류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황석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2025 부산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교육 분야 교류 행사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외교단은 지난 13일 울란바토르 더 블루스카이 호텔에서 부산지역 13개 대학과 함께 몽골 유학생 부산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했다.

유학설명회에는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400여명의 예비 대학생과 가족들이 참석해 부산 유학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또 청년 외교 단원들이 직접 부산 홍보부스를 운영, '유학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알렸다.

지난 14일과 15일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스마트 그린도시'와 '청년 활력 미래도시'라는 부산의 목표와 ESG(환경·사회·투명경영) 가치를 실천하는 글로벌 청년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15일 오후에는 울란바토르 시청을 방문, 부산시와 울란바토르시의 우호 협력 도시 체결 10주년에 즈음한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 글로벌도시재단과 부산도서관은 울란바토르 시립 중앙도서관과 '부산·울란바토르 도서 기증과 교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이스탄불서 한국전 참전용사 교류

연합뉴스 김선호 기자(2025. 09. 24.)



튀르키예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기념사진 찍는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이 튀르키예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를 만나 평화와 우정의 메시지를 나눴다.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지난 20일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을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유라시아 외교단은 이스탄불시와 함께 알리 에미리 에펜디 문화센터에서 '유엔(UN) 창설 80주년 기념 한국전 참전용사 감사회'를 열어 튀르키예 한국전 참전 용사와 후손 150여명을 만났다.

행사는 순국선열 추모 묵념, 양 도시 대표의 축사,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 영상 시청, 감사패 전달, 부산시립 무용단과 청년 외교 단원, 이스탄불시 무용단이 참여하는 헌정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한 90대 참전용사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발전된 모습을 보고 기뻐고 평화를 수호하려고 참전했던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소감을 말했다.

이스탄불시는 영원한 우정과 형제애의 상징으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부산시와 이스탄불시는 2002년 자매도시 협정 체결 이후 꾸준히 교류해왔다.

튀르키예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국 중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2만 1천212명의 군인을 파병했다.

전사자 수는 1천5명,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에 봉안된 유해 수는 462기에 이른다.

부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1만km 대장정 마무리

서울경제 사회부 조원진 기자(2025. 09. 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이 지난 22일 독일 베를린에서 '부산데이 인(in) 베를린' 행사를 열고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

베이징·울란바토르·알마티·이스탄불·베를린 방문
문화인·청년 등 100여 명, 평화 외교 성과 거둬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꾸린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이 25일 베를린 일정을 끝으로 16일간의 1만420km 유라시아 횡단 여정을 마쳤다. 지난 10일 출발한 도시외교단은 베이징·울란바토르·알마티·이스탄불을 거쳐 베를린에 도착했으며 100여 명의 경제인·문화인·청년이 함께 했다.

도시외교단은 현지시각 22일 베를린 퀴하우스에서 열린 거점 행사 '부산데이 인 베를린'을 통해 부산의 역사와 문화, 도시브랜드를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산 청년의 한국무용과 베를린 청년 댄스팀 공연, 한·독 청년 합동 K-POP 무대, 글로벌 청년 앰배서더 위촉식, 부산시립무용단 특별 공연 등이 이어졌다. 행사장 내 체험부스에서는 부산 기념품 전시, 전통 간식 시식, 홍보자료 제공을 통해 베를린 시민들에게 부산을 친근하게 소개했다.

23일에는 '무직페스트(Musikfest) 베를린' 폐막 무대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 공연이 펼쳐졌다. 아시아 교향악단 최초로 베를린 필하모니 측의 초청을 받은 이번 무대는 현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도시외교단은 각 도시에서 경제·교육·문화 교류를 진행하며 부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베이징에서는 뷰티·헬스케어 기업 상담회를 통해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했고, 울란바토르에서는 13개 대학이 참여한 유학 설명회를 열고 ODA 사업지역 유치원을 방문했다. 알마티에서는 고려인 동포와 함께하는 문화교류의 밤을 마련해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이스탄불에서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 감사회를 열어 평화외교의 의미를 더했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2016년 시작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10년간 부산의 국제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공공외교단으로 발전해 부산-유라시아 도시 간 협력의 중심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독일 베를린서 부산 매력 소개...'유라시아 대장정'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권병석 기자(2025. 09. 25.)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이 베를린을 마지막으로, 25일 총 1만420km 유라시아 횡단 일정에 마침표를 찍는다고 밝혔다.

경제인, 문화인, 청년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도시외교단은 지난 10일 베이징·울란바토르·알마티·이스탄불·베를린을 잇는 여정을 떠났다.

도시외교단은 현지시각 22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독일 베를린 퀴하우스에서 거점 행사로 '부산데이 인(in) 베를린'을 열고 부산의 역사와 문화, 도시브랜드를 알렸다.

베를린 시민, 현지 기관 관계자, 문화계와 한인회 인사 등을 초청해 부산의 매력을 소개했다.

이어 23일에는 '무직페스트(Musikfest) 베를린' 폐막공연에 초청받은 부산시립교향악단 공연을 참관했다.

도시외교단은 16일간의 대장정 동안 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홍보라는 목표를 세우고 국제 무대에서 부산의 위상을 높였다.

앞서 베이징에선 부산의 8개 뷰티·헬스케어 기업이 주축으로 기업상담회와 교류회를 열어 부산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했다.

울란바토르에서는 부산의 13개 대학 관계자가 참여하는 유학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인재 확보에 힘을 쏟았다. 또 기존 국제 개발협력(ODA) 사업지역의 공립유치원을 방문해 교육과 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알마티에서는 고려인 동포를 초청해 '부산-알마티 문화교류의 밤'을 개최했고 이스탄불에선 유엔(UN) 창설 80주년 기념 한국전 참전용사 감사회를 열고, 경제와 문화 교류를 넘어 평화교류 사절단의 역할을 했다.

시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지난 10년간 유라시아와 함께 걸으며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알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라며 "도시외교단이 내년에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형 공공외교단이자, 부산과 유라시아 도시 간 교류협력의 중심축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언론보도 현황

① 국내보도 (62건)

연번	매체	보도일자	작성자	기사제목
1	뉴스핌	2025.09.10.	남동현	부산시,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 "글로벌 허브도시 알린다"
2	이투데이	2025.09.10.	서영인	"부산에서 유라시아로"... 청년·기업·예술인 함께하는 16일간의 외교 여정
3	연합뉴스	2025.09.10.	오수희	부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자매·우호 도시 협력 강화
4	뉴스1	2025.09.10.	임순택	부산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글로벌 교류·브랜드 홍보
5	서울경제	2025.09.10.	조원진	유라시아 향한 '부산 도시외교단' 출정...16일간 5개 도시 여정
6	쿠키뉴스	2025.09.10.	손연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16일간 자매·우호도시 5곳 방문
7	비즈니스코리아	2025.09.10.	이송훈	부산시, 유라시아 5개국 출정으로 국제 협력 강화
8	NBN미디어	2025.09.10.	김재겸	부산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
9	뉴스프리존	2025.09.10.	최근내	도시와 도시 잇는 교류의 여정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
10	파이낸셜뉴스	2025.09.10.	권병석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5개 자매·우호도시 교류 강화
11	중도일보	2025.09.10.	김성욱	부산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16일간의 여정 시작
12	CNB뉴스	2025.09.10.	임재희	부산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16일간 해외 교류 여정 나선다
13	아이뉴스24	2025.09.10.	정예진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5개 자매·우호도시 교류 강화
14	민주신문	2025.09.10.	양희정	부산, 도시와 도시를 잇는 교류의 여정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
15	BBS NEWS	2025.09.10.	김상진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오늘 출정
16	뉴시스	2025.09.10.	원동화	"부산을 알리자" 유라시아 외교단 100명 출정...베를린 등 5개 도시 순방
17	부산MBC	2025.09.10.	류제민	부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16일간 5개국 방문
18	국제뉴스	2025.09.10.	김옥빈	부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16일 동안 5개국 방문
19	스카이데일리	2025.09.10.	김종창	부산시의회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
20	국제신문	2025.09.10.	김진룡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전도사,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
21	시민일보	2025.09.10.	최성일	부산시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
22	시사매거진	2025.09.10.	성재림	부산시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 5개국 방문
23	SK브로드밴드	2025.09.10.	김윤정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 5개 도시 순방
24	메트로신문	2025.09.11.	이도식	부산시의회,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 진행
25	브릿지경제	2025.09.11.	서진혁	부산시의회,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 개최
26	뉴스1	2025.09.14.	임순택	부산시, 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와 교류·협력 확대
27	연합뉴스	2025.09.14.	민영규	[부산소식] 부산시, 추석 앞두고 다중 이용 건축물 안전 점검
28	아시아경제	2025.09.14.	김용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떴다... 부산-베이징 기업 연결
29	뉴스핌	2025.09.14.	남동현	부산시, 베이징서 첫 경제 교류... "뷰티·헬스케어 기업 중국 진출 확대"
30	중도일보	2025.09.14.	김성욱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부산-베이징 경제 교류 물꼬

연번	매체	보도일자	작성자	기사제목
31	브릿지경제	2025.09.15.	서진혁	부산시의회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베이징서 첫 경제 교류 성과
32	국제뉴스	2025.09.15.	김옥빈	부산-베이징 기업을 잇다...'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방문 성과 '톡톡'
33	쿠키뉴스	2025.09.15.	손연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중국서 330만 달러 계약 성과
34	EBN	2025.09.16.	이혜미	부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中 베이징서 뷰티·헬스케어 교류회
35	중도일보	2025.09.17.	김성욱	부산시의회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울란바토르 미래 세대와 교류
36	국제뉴스	2025.09.17.	김옥빈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울란바토르시 미래 세대와 교류 나서
37	연합뉴스	2025.09.17.	오수희	부산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울란바토르서 교육분야 교류
38	브릿지경제	2025.09.17.	서진혁	부산시의회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울란바토르서 교육·문화 교류 전개
39	쿠키뉴스	2025.09.17.	손연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몽골 울란바토르서 '부산 유학 설명회'
40	메트로신문	2025.09.18.	이도식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 울란바토르서 교육 교류 활동 실시
41	베타뉴스	2025.09.19.	이재승	동서대-동아 글로벌 연합대학, 몽골 부산유학박람회 성료
42	부산일보	2025.09.19.	김현지	동서-동아 글로벌 연합대학, 몽골 부산유학박람회 성료
43	파이낸셜뉴스	2025.09.19.	권병석	동서대-동아대 글로벌 연합대학, 몽골 울란바토르서 부산유학박람회
44	아시아경제	2025.09.19.	김용우	몽골 유학박람회 '박씨' 심었다... 동서대, 글로벌연합대학 국제협력 강화
45	CNB뉴스	2025.09.19.	임재희	동서-동아 글로벌 연합대학, 몽골 부산유학박람회 성료
46	브릿지경제	2025.09.19.	서진혁	동서대, 몽골 유학박람회 성료...글로벌 연합대학 글로벌 협력 강화
47	한국대학신문	2025.09.19.	김연주	동서-동아 글로벌 연합대학, 몽골 부산유학박람회 성료
48	BBS NEWS	2025.09.19.	박찬민	글로벌 연합 동아-동서, 몽골서 공동 유학박람회
49	베리타스알파	2025.09.19.	박소현	동서대-동아대 글로벌 연합대학 몽골 부산유학박람회 성료
50	글로벌경제	2025.09.19.	강영범	동서대-동아 글로벌 연합대학 몽골 부산유학박람회 성료
51	메트로신문	2025.09.20.	이도식	동서대, 몽골 유학 박람회 성료
52	내일신문	2025.09.21.	장세풍	동서-동아 글로벌 연합대학, 몽골 부산유학박람회
53	국제신문	2025.09.21.	최영지	동서대, 몽골서 유학박람회
54	대한경제	2025.09.22.	김옥찬	[부산·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9월 22일)] 동서-동아 글로벌 연합대학 몽골 부산유학박람회 성료 등
55	연합뉴스	2025.09.24.	김선호	부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이스탄불서 한국전 참전용사 교류
56	부산일보	2025.09.24.	박석호	베를린 가을밤에 울려 퍼진 환상의 부산시향 선율
57	연합뉴스	2025.09.25.	김선호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대장정 마무리...부산 매력 소개
58	파이낸셜뉴스	2025.09.25.	권병석	독일 베를린서 부산 매력 소개...'유라시아 대장정' 마무리
59	서울경제	2025.09.25.	조원진	부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1만km 대장정 마무리
60	아이뉴스24	2025.09.25.	정예진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대장정 마무리...부산 매력 소개
61	뉴스캠프	2025.09.25.	정영석	부산시, 16일간 유라시아 횡단 도시외교단 귀국...베를린서 '부산데이' 성료
62	부산MBC	2025.09.25.	류제민	부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16일간 여정 마무리

② 국외보도 (9건)

연번	매체	보도일자	기사제목
1	电脑之家	2025.09.12.	韩国釜山代表团参观小米汽车工厂：技术实力让人叹为观止 (한국 부산 대표단 샤오미 자동차 공장 참관: 기술력은 사람의 감탄을 자아냈다) https://article.pchome.net/info/6656.html
2	IT之家	2025.09.12.	韩国议员参访北京小米汽车工厂，夸赞“实力让人叹为观止” (한국 의원 베이징 샤오미 자동차 공장 참관, “실력이 사람의 감탄을 자아낸다”고 칭찬했다) https://www.ithome.com/0/882/591.htm
3	中国家电网	2025.09.12.	韩国议员参访北京小米工厂 (한국 의원 베이징 샤오미 공장 참관) https://m.cheaa.com/n_detail/w_649729.html
4	北京日报客户端	2025.09.15.	韩国代表团访京，惊叹“技术发展太快了” (한국 대표단 베이징 방문,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다”며 놀라워했다) https://news.qq.com/rain/a/20250915A08N5000?suid=&media_id=
5	北京日报客户端	2025.09.15.	时隔20年再访京，韩国企业家感叹：中国发展比韩国快 (20년 만에 다시 베이징 방문, 한국 기업인은 감탄했다: 중국은 한국보다 발전이 빠르다) https://news.bjd.com.cn/2025/09/15/90067635.shtml
6	IBB	2025.09.19.	Istanbul and Busan Mark the 75th Anniversary of Turkish Troops' Departure to Korea with Joint Events (이스탄불과 부산, 터키군 한국 파병 75주년 기념 공동행사 개최) https://frd.ibb.istanbul/en/istanbul-and-busan-mark-the-75th-anniversary-of-turkish-troops-departure-to-korea-with-joint-events/
7	北京友协	2025.09.24.	韩国釜山代表团访问北京：赞中国发展速度 盼深化多领域合作 (한국 부산 대표단 베이징 방문: 중국 발전 속도를 칭찬하며 다방면의 협력을 심화하기를 희망했다) https://peking.bjd.com.cn/content/s68d3d196e4b0221b9bed52ef.html
8	北京友协	2025.09.24.	中韩美容健康产业企业洽谈交流会在京成功举办 (중한 미용 건강 산업 기업 상담 교류회가 베이징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https://peking.bjd.com.cn/content/s68d3d1eee4b02424b0c0a5fb.html
9	gov.kz	2025.10.30.	EURASIA CITIZEN DIPLOMATS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https://www.gov.kz/memleket/entities/mfa-busan/press/news/details/1095475?lang=ko



EURASIA CITIZEN DIPLOMATS

8.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현황

BGCF
status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현황

설립개요

설립연도 2005. 11. 25. (개소 2006. 2. 28.)

설립근거 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설립목적 국제교류 업무 및 영어방송업무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추진 도모

※ 법인통합 :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근거(2023. 7. 1.)

주요사업

- ✦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통상활동 지원사업
- ✦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 ✦ 영어 등 다국어방송을 통한 정보·지식의 제공
-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운용
- ✦ 방송광고의 편성·조정
- ✦ 해외 방송사와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외국어 교육 관련 사업
- ✦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방송현황

주 파 수 (주) FM 90.5MHz (송신출력 : 1kW)
(보조) FM 103.3MHz (송신출력 : 20~30W)

방송구역 (주) 부산광역시, 김해시, 창원시 진해구
(보조) 서부산, 기장, 정관지역

방송시간 24시간 ▶ 자체제작·편성 : 21시간 (87.5%)

주요시설

국제교류본부

위 치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 부산회관 13층

시설현황 대표이사실, 사무처, 강의실, 회의실, 교류라운지 등

영어방송본부

위 치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센텀벤처타운 401호

시설현황 사무처, 회의실, 응접실, 주조정실, 스튜디오, 편집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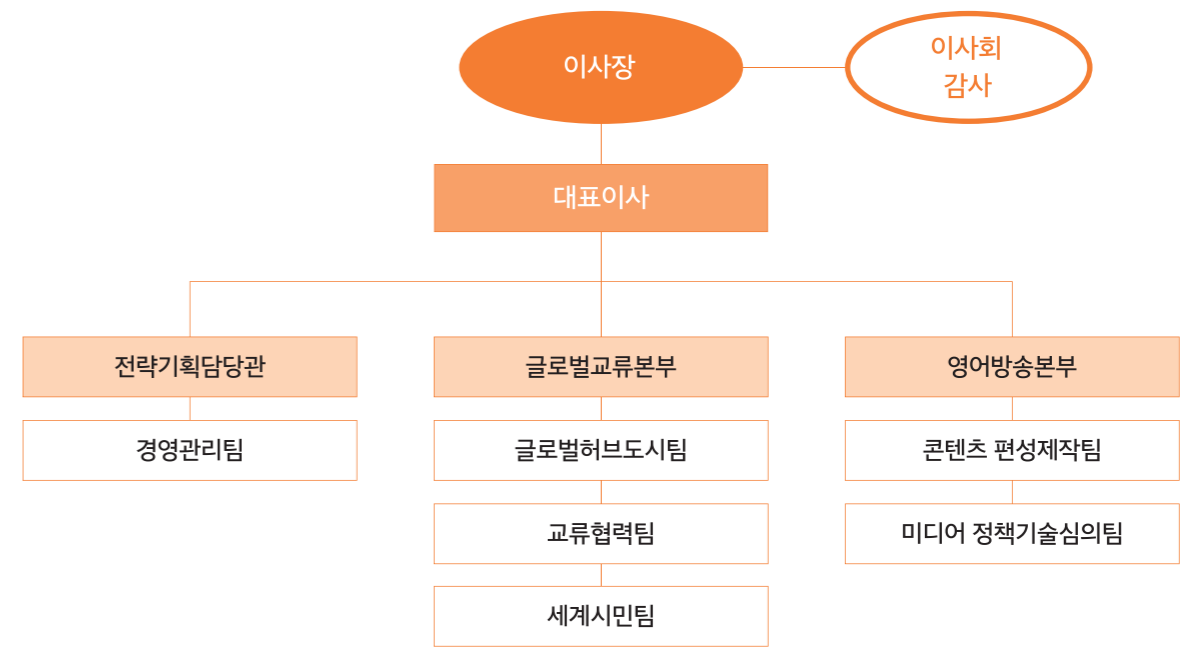
송신소

(주) 황령산 송신소

(보조) 기장, 녹산, 정관 방송보조국

송신시설 송신탑 안테나, 송신설비

조직 : 2본부 1담당관 6팀



2026년도 중점 추진과제

목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브랜딩하는 공공외교 미디어 전문기관

추진 전략

「부산형 도시외교」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중추도시 위상 강화

개방형 혁신을 통한
「외국인 특화 지원
플랫폼」 구축

「독보적 미디어 역량」
기반 초격차 브랜딩으로
도시 경쟁 우위 확보

「성과 기반 전략체계」
구축으로 경영효율화 및
위기 대응 강화

추진 과제

「성과 기반 전략체계」 구축으로 경영효율화 및
위기 대응 강화

- ① 도시외교·미디어 기반 재단 대표 브랜드사업 육성
- ② 글로벌 도시외교 네트워크 확장 및 전략 파트너십 구축
- ③ 국제기구·국제NGO 연계 공공외교 프로그램 확대
- ④ 도시외교 성과 확산 및 시민 글로벌역량 강화

외국인 유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및 정주환경 강화

- ⑦ 외국인주민 생활·행정 상담·정보 통합지원 서비스 강화
- ⑧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정착지원을 위한 'Study Busan 30K' 연계 강화

부산형 국제개발 협력 확대 및 ODA 협력체계 구축

- ⑤ 지역 특화형 ODA 연계사업 기획 및 추진
- ⑥ 국제기구·유관기관 파트너십 기반 ODA 협력모델 구축

미디어콘텐츠 기반 도시외교 확산 및 부산 글로벌
위상 제고

- ⑨ 뉴미디어 기반 초격차 방송·디지털 제작 체계 고도화
- ⑩ 부산 스토리 기반 글로벌 콘텐츠 및 '영어하기 편한 도시' 미디어 생태계 구축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성과사례집

EURASIA CITIZEN DIPLOMATS

발행처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발행인 전용우(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

발행일 2025. 12.

기획 글로벌교류본부 교류협력팀

주소 (우) 476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 부산회관 13층

대표전화 051) 923-6803

팩스 051) 711-6826

홈페이지 www.bgcf.or.kr

편집·디자인 에이엠씨 디자인 051) 817-9114

